

자동차의 컬러, 휠의 앵글
그릴의 완벽한 무늬 대칭까지
세심하고 까다롭게 요구하는
당신에게 맞춥니다



자극히 개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혁신적인 QV포트폴리오를 통한 QV만의 입체적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경험하십시오

위험관리는 적극적으로

Risk Budgeting에 기반한 NH투자증권만의 독자적인 모델을 도입, 위험을 적극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배분전략은 현실적으로

유망자산으로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제시함으로써 기관투자자와 달리 개인투자자들의 제한된 자금에 맞춘 현실적 분산전략을 제시합니다.

상품제안은 구체적으로

자산배분에서 끝나는 기존 자산관리와 달리 차별화된 노하우로 최적의 상품만을 엄선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NH투자증권 자산배분 전략위원회 전문가들이 주단위, 월단위 회의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심 관리해드립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 영업직원으로 부터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6-00528호 (2016.2.2~2017.2.1)

KLPGA members

2016
vol.37
MARCH

3



Renewal



커버스토리

KLPGA를 알리다, 말하다, 함께하다 '역대 홍보모델 활약상'

명예기자 스페셜

꽃보다 'KLPGA 명예기자'

특집기사

각양각색의 '트로피 이야기'

필드나들이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VIVA HEART

CJ CHEILJEDANG



햇반이 차린 더 맛있는 가정식 밥상을 드립니다

햇반이 들어있어 더 맛있는 한끼, 햇반 컵반.
햇반 컵반은 햇반에 엄마의 정성으로 만든 요리를 더해
따뜻한 한 끼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햇반이 들어있는 가정식



KLPGA 멤버십 매거진 2016년 3월호



KLPGA Membership Magazine 3



혜택



우리들리조트 제주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한라산과 바다, 오름과 섬, 곳곳에 자리한 식물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무엇보다 연평균 16.7℃의 온화한 기후와 제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돈내코에 위치하여 사계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니콜라우스디자인컴퍼니'에서 Look&Feel이라는 콘셉트로 설계한 코스로 총거리 7201야드, 홀18, 파73로 이루어져 있고, 다이내믹한 코스 공략이 특징입니다. 탁 트인 서귀포 앞바다가 보이고 푸른 코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서 멋진 플레이를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기간 | 2014년 2월 ~
혜택 | KLPGA 정회원 : 그린피 50% / 정회원 간 2인 플레이 가능, KLPGA 준회원, 티칭회원 : 그린피 30%
연락처 | 063-320-3215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무로 1535

기간 | 2022년 10월 ~
 혜택 | 동반자 2~3인 내장 시
 정회원 :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그린피 50% 할인, 준회원 : 주중 그린피 50%, 주말 20% 할인
 담당자 | 강유진 프로 연락처 | 064-766-7802 / 010-9162-0207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 | 2015년 3월 ~
혜택 | 주중 1부(07:30 이전)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면제 (4인 1팀 기준)

KLPGA Membership Magazine 5

member's service

회 / 원 / 혜 / 택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비치 CC 제주

기간 | 2014년 4월 ~
혜택 | 프로는 골프장 회원요금, 동반자는 골프장 규정요금
연락처 | 프론트(064-766-6200), 익스프레스(064-780-8000)
홈페이지 | golf.haevichi.com (사전예약제로 운영)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기간 | 2015년 6월 12일 ~
혜택 | 주중 1부 아마추어 3인 동반 시 프로 1인 그린피 50,000원,
아마추어 2인 동반 시 프로 2인 그린피 65,000원
연락처 | 051-726-0752

힐드로사이 CC

기간 | 2014년 8월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5만 원(4인 1팀 기준)
연락처 | 예약실 033-439-3333(유선 예약만 가능)

360도 CC

기간 | 2014년 1월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주중 50% 할인(4인 1팀 기준),
1일 1회 본인에 한하며 주중 잔여 타일에만 가능
담당자 | 윤준섭 주임(031-880-3612) 연락처 | 031-880-3600



강남 베스트성모안과

기간 | 2016년 1월 ~
혜택 | 1) 안 검진 : 50여 가지 정밀 라식검사 무료 검진
2) 시력교정수술비 혜택 : 라식, 라섹, 안내렌즈 삽입술 ICL, 노안수술
3) 동반수술 시 추가할인, PRP자가혈청치원
4) OCT검사장비 대학병원급장비 보유
5) 백내장검사&수술, 황반변성&녹내장 조기검진(30~50%)
연락처 | 윤형준 실장 (010-9771-8690)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4-9 송촌빌딩 14층(역삼역 6번 출구)

서울메디케어

기간 | 2014년 10월 ~
혜택 |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1) 종합검진비 20% 감면, 비급여검사비 20% 감면
2) 연계진료 필요 시 상급종합병원 진료 의뢰 진행
의료혜택항목 : MRI, MDCT, 초음파, 위대장내시경 등 비급여 영상검사 외
연락처 | 1644-0336
홈페이지 | www.seoulmedicare.com

서울위드치과

기간 | 2014년 2월 ~
혜택 | 비보험 진료 10~20% 할인
담당자 | 정홍주 부장 연락처 | 010-7795-0515 (사전예약제로 운영)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10번길 19, 4층(서현동, 센트럴빌딩)

세브란스체크업

기간 | 2014년 9월 ~
혜택 | 1)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을 위한 패키지검진
2) 지방 고객에 한하여 KTX 편도 금액 상당의 할인 혜택 제공(영수증 지참 必)
3) 희망 고객에 한하여 검진 후 영상기록 무료 제공
4) 신속한 상담 및 예약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
5) 서비스 대상자가 추가 진료 필요 시 우선진료(Fast Track) 시스템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으로 신속한 연계 진료 제공
연락처 | 1588-7757 (사전예약제로 예약 필수)
위치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4, 5층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스턴 치과의원

기간 | 2012년 11월 ~
혜택 | 구강검진 및 상담, 치료 및 사후 관리, 진료 및 수술비용 할인
담당자 | 김미경 실장
연락처 | 02-553-2804

하늘안과의원

기간 | 2012년 7월 1일 ~
혜택 | 안구 종합검진(50여 가지 정밀검사) 무료,
시력교정수술비 혜택(라식, 라섹, 안내 렌즈삽입술, 노안수술),
ONE-DAY 수술 가능(추가비용 없음),
웨이브프론트 무료 수술허방 시 제휴 특가,
KLPGA 회원 및 임직원 대상 시력교정시술 할인
연락처 | 02-573-9779 (사전예약제로 운영)



군산 세빌스 호텔

기간 | 2015년 5월 20일 ~
혜택 | 슈퍼리얼 트윈룸, 더블룸 198,000원 → 주중 66,000원 / 주말 88,000원 / 조식 별도(15,000원)
담당자 | 김윤환 지배인 연락처 | 063-730-8082

군산 오스카스위트 호텔

기간 | 2014년 6월 11일 ~
혜택 | 디럭스더블 / 110,000원 → 60,000원(할인가)
디럭스 트윈 / 121,000원 → 50,000원(할인가)
스위트 더블 / 143,000원 → 88,000원(할인가)
스위트 트윈 / 154,000원 → 105,000원(할인가)
스위트 트리플 / 220,000원 → 135,000원(할인가)
로얄테라스 스위트 / 220,000원 → 135,000원(할인가)
디럭스 더블, 디럭스 트윈, 스위트 더블 2인 기준 / 조식 불포함 / 부가세 포함
한 객실 추가 투숙 시 1인당 객실요금 10,000원 / 조식 10,000원 제공
담당자 | 박진만 지배인 연락처 | 063-464-0605~6

그랜드컨벤션센터

기간 | 2013년 6월 ~ (선착순 50팀)
혜택 | KLPGA 회원 각 직계 부모, 자녀 예식, 고화연, 돌잔치 할인(계약 순서에 따라 50팀)
담당자 | 유미영 차장, 신경선 과장 연락처 | 02-3667-9000, 7776

금호리조트

기간 | 2015년 4월 ~
혜택 | KLPGA 회원 및 직계 가족 객실 할인 혜택(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이용방법 | 1) KLPGA 회원혜택 해당란을 통해 예약페이지 접속 후 예약 진행
2) 예약실 유선예약도 가능
연락처 | 02-737-5400(예약실)

까라디

기간 | 2012년 9월 ~
혜택 | 까라디에서 제공하는 헤어, 메이크업 관련 모든 서비스, 정가의 50% 할인
연락처 | 02-545-4000

레드캡투어

기간 | 2012년 9월 ~
혜택 | 일반 여행 상품 최대 9% 할인, 하니문 최대 10% 할인, 직계가족, 대리 예약 등, 무이자 혜택 서비스
담당팀 | 레드캡투어 마케팅팀 연락처 | 02-2001-4500
기타 | 신규 KLPGA 회원의 경우, 상단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존 KLPGA 회원의 경우, ID 및 패스워드는 KLPGA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린 필라테스

기간 | 2015년 6월 ~
혜택 | 1) 골프 컨디셔닝 30% 할인, 2) 재활, 도수통증 관리 20% 할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SK하브 A동 263호
담당자 | 박혜지 대표 연락처 | 031-602-7840 홈페이지 | blog.naver.com.rinpilates

(주)모리앤

기간 | 2014년 4월 ~
혜택 | 모리앤 헤어샴푸, 헤어토닉 제품 50% 할인, 본사 홈페이지 및 전화 주문 구매
담당자 | 이준형 과장 연락처 | 051-929-6916 / 051-9733-9733
홈페이지 | www.ks1004.kr
기타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klpga 가입

베니키아 호텔 문학

기간 | 2015년 4월 ~ 2016년 3월
혜택 | 스탠다드(2인) 154,000원 → 주중 60,000원, 주말 60,000원 조식 불포함 /
부가세 포함 / 기준 투숙인원 초과 시 1명 당 10,000원 추가(7세 이상)
담당자 | 김주선 총지배인 연락처 | 033-734-7315
홈페이지 | www.munmakhotel.co.kr

세계골프역사박물관

기간 | 2014년 10월 ~
혜택 | KLPGA 회원 세계골프역사박물관 관람 시 무료 입장
담당자 | 이등은 학예사 연락처 | 02-2192-3005
개관시간 | 월~토 : 10시 30분~19시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8 슈퍼리어타워 지하2층
기타 | KLPGA 회원임을 밝혀주시고,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와룡산업 와플케어 개인용 온열기

기간 | 2014년 12월 ~
혜택 | 개인용 온열기 전품목 30% 할인
의료용(2인용) /소비자가 700,000원 → 할인가 490,000원
의료용(1인용) /소비자가 550,000원 → 할인가 385,000원
고급형(2인용) /소비자가 550,000원 → 할인가 385,000원
고급형(1인용) /소비자가 450,000원 → 할인가 315,000원
실속2인용 /소비자가 500,000원 → 할인가 350,000원
투어용 /소비자가 350,000원 → 할인가 245,000원

캘러웨이 골프

혜택

- 캘러웨이 어패럴 KLPGA 회원 할인 서비스
: 정가의 30% 할인 (정상매장 한함, 이월상품 제외)
- 제품 구입시 KLPGA 회원증 또는 회원확인서 제시



연락처 | 02-2211-1343 위치 | 캘러웨이 어패럴 전국매장
담당자 | 최은영 과장
홈페이지 | www.callawayapparel.co.kr

“Enjoy the game, We make golf fun!” 캘러웨이 골프의 철학이자 기업이념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최상의 골프클럽으로 골퍼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일반 골퍼들이 더 큰 즐거움을 얻는 것이 캘러웨이 골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캘러웨이 어패럴은 세계 최정상 골프웨어를 상징합니다. 최고의 플레이를 위한 기능성과 디자인이 유합된 베이직 스타일로 어떤 환경에도 구애 받지 않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시크한 모노톤의 디자인이 더해져 한 층 더 세련되어졌고, 플레이어의 바디에 최적화된 고기능성 골프웨어로 성공적인 라운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ember's service

회 / 원 / 혜 / 택

소파용 / 소비자가 250,000원 → 할인가 175,000원
 방석 / 소비자가 120,000원 → 할인가 84,000원
 배달개 / 소비자가 150,000원 → 할인가 105,000원
 잘차 | 본사 홈페이지 및 전화 주문 구매
 담당자 | 김선옥 실장 연락처 | 031-977-8774 홈페이지 | www.waplecare.com
 기타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KLPGA7입
 본 혜택은 KLPGA회원에 한하며, 이용 시 반드시 회원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웰리힐리파크(구,성우리조트)

기간 | 2012년 12월 1일 ~
 혜택 | 객실이용 시 기간별 특별요금으로 제공
 객실예약 | www.wellihillpark.com/partnership 객실정산문의 | 1544-8833(ARS 1번)

제주 빌라드 애월

기간 | 2015년 6월 ~
 혜택 | 객실료 50% 할인(물빌라 제외)
 연락처 | 064-720-9013 주소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516-7(신엄리 2768-7)

제주 항공우주 호텔

기간 | 2014년 5월 ~
 혜택 | 슈퍼리어(9평) : 주중 70,000원 / 주말 90,000원
 디럭스(13평) : 주중 80,000원 / 주말 100,000원
 객실예약 | 064-747-4900 기타 | 성수기(7/18 ~ 8/17) 별도 요금 적용

청풍리조트

기간 | 2015년 12월 ~
 혜택 | 객실(23㎡, 스탠다드 트윈/온돌) / 정상 요금 : 133,000원
 할인요금(VAT포함) / 주중(일~목) : 60,000원, 주말(금, 토) : 75,000원
 담당자 | 박종미 연락처 | 02-422-8100

캘러웨이 골프 어패럴 할인

기간 | 2016년 1월 ~
 혜택 | 캘러웨이 어패럴 30% 할인(정상가 대비) / 전국매장(정상매장, 아울렛)
 담당자 | 최은영 과장 연락처 | 02-2211-1343

LF몰 헤지스 골프, 닥스골프 할인

기간 | 2016년 2월 1일 ~ 12월 31일
 혜택 | 소비자 정상가 40% 할인(1인 200만 원 한도)
 1) 온라인 : 협회 홈페이지 접속 → LF몰(www.lfmail.co.kr) 헤지스골프, 닥스골프
 2) 오프라인 : 전국 주요 가두매장(백화점 제외)
 연락처 | 1544-5114(고객센터)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eMA

기간 | 2014년 12월 19일 ~ 2016년 12월 18일(2년간)
 혜택 | 학비감면, 입학 지원
 1) 학비 감면 혜택 : 등록금의 20% 감면
 한학기 등록금 : 3,442,000원(20% 감면 시 : 2,753,600원)
 ※ 입학금(입학 시 1회만 납부) : 467,000원
 2) 모집정원 : 모집인원 정원 시 상호협의 하에 진행
 3) 강사임용 : 협회회원 지원 시 특전 부여(가산점 부여 할 수 있음)

파고다 어학원

혜택

KLPGA 전 회원 대상, 매월 오프라인(파고다어학원) 1개 강좌 및
 온라인 2개 강좌 수강료 전액 지원
 적용 지점 | 강남, 종로, 신촌, 부산서면



〈오프라인 강좌〉

- 각 지점 별 등록처 직접 방문 신청 및 회원증 지참 필수
- 수강 가능 연령 30세 이하(84년 이후 출생)로 제한

〈온라인 강좌〉

- KLPGT 홈페이지 → 멤버존 → 외국어교육 배너 클릭 후 수강 등록
- 수강 가능 연령 제한 없이 전 회원 가능

대표 문의 전화 | 02-6907-2857 홈페이지 | www.pagoda21.com

파고다어학원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비롯해 7개 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종합어학원입니다. 국내 여자프로 골프선수들의 해외 진출에 힘을 보태고자 지난 2009년부터 매월 오프라인(파고다 어학원) 1개 강좌, 온라인 2개 강좌의 수강료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KLPGA 소속 회원들은 해외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회화를 무료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파고다의 체계적인 강사 채용시스템을 통해 선발한 전문 강사진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학습자들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정경일 교수 (3408-3877, 010-9357-0680)
 연락처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3408-3740, 3703, 3704)
 홈페이지 | www.emba.ac.kr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eMA)
 1) 모집학과 : 골프·리조트경영학과
 2) 모집인원 : 총 00명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미 실시) - 평가기준 : 적성, 경력, 성적, 연구계획서 등

파고다 어학원

기간 | 2013년 4월 1일 ~
 혜택 | KLPGA 회원 매달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오프라인 1강좌 + 온라인 2강좌 무료 수강
 〈오프라인 강좌 (월 1과목 수강 가능)〉
 · 파고다 어학원 4개 지점(강남점, 종로점, 신촌점, 부산점)
 · 각 지점 별 등록처 직접 방문 신청(KLPGA 회원증 지참 필수)
 · 수강 가능 연령 30세 이하(84년 이후 출생)로 제한
 〈온라인 강좌 (월 2과목 수강 가능)〉
 · KLPGT 홈페이지 → 멤버존 → 외국어교육 배너 클릭 후 수강 등록
 · 수강 가능 연령 제한 없이 전 회원 가능

신청기간 | 매월 15일 ~ 30일
 담당자 | 파고다 고영순 대리 연락처 | 02-6907-2857
 기타 | 수업(온라인, 오프라인) 진도를 70% 미달일 경우 : 1년간 지원 중단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강이 적발될 경우 : 지원 영구 중단 (온라인, 오프라인)
 ※ 대리인 :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파고다 SCS(전화외국어)

기간 | 2016년 1월 ~
 혜택 | KLPGA 회원 무료 전화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1) 모집인원 : 70명 (영어 : 50명, 일본어 : 10명, 중국어 : 10명)
 - 우선순위 : 1순위(신규 신청자), 2순위(기존 신청자)
 2) 교육기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주 3회 교육) / 매일 06:00 ~ 24:00 중 선택
 3) 교육지원
 - 주3회 10분 교육, 매월 교육비 100% 협회 지원(인당 약 60,000원)
 - 사이버강의 무료 지원 : 파고다 홈페이지 사이버강의 무료 수강
 4) 지원기간 : KLPGA에서 개인별 최대 4개월(총 48회) 지원
 5) 신청방법 :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담당자 E-Mail 또는 Fax로 발송
 담당자 | KLPGA 노회원 사원
 연락처 | 02-560-4427, FAX)02-539-6003 / nhy1021@klpga.org
 홈페이지 | klpga.npagoda.com/user/main
 기타 | 1) 70% 이상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 자동 지원 중단(수업 연기 불가)
 출석을 미달 시점을 기산 월로 차후 1년간 전화영어교육 지원 중단(수업 연기 불가)
 2) 매달 지원증단자에 대한 공석은 대기순위로 대체 (신규모집 시 대기순위 부여)

한국능률협회(회원인문소양교육)

기간 | 기간 : 2015년 8월 ~ 2016년 7월
 혜택 | KLPGA 회원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원 및 한국능률협회 교육 신청 시 할인(기타혜택)
 1) 교육대상자 : KLPGA 회원(정/준/티칭)
 2) 교육형태 : 매월 1회(2015년 8월 ~ 2016년 7월)
 3) 교육프로그램
 가. 리더스모닝포럼(서울) 나. 인사이트포럼(전국 5개 도시)
 4) 모집인원(선착순모집)
 가. 리더스모닝포럼 : 20명 나. 인사이트포럼 : 50명
 ※ 우선순위 : 1순위(신규 신청자), 2순위(기존 신청자)
 5) 교육기관 : 한국능률협회
 6) 교육지원
 매월 1회 한국능률협회에서 진행되는 포럼 참가 및 참가비 100% 협회 지원(인당 약 200,000원)
 7) 신청방법
 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로 신청
 나.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E-MAIL 또는 FAX로 발송

다. E-MAIL : nhy1021@klpga.org / FAX : 02-539-6003
 ■ 기타혜택
 가. KLPGA 회원 한국능률협회 교육 신청 시 최대 20% 할인
 - 공개교육(계층, 리더십, 공통, HRD, 직무, 글로벌 과정, KMAC 직무과정)
 - 사이버교육(계층, 리더십, 조직, 경영, 영업, 금융, 유통, 제조, 건설, 의료 과정)
 - 컨퍼런스(트렌드 세미나)
 ※ 홈페이지 참조 www.kma.or.kr
 나. 기타 세미나 초청(명품지식 콘서트, HRD 특별 컨퍼런스, KMA 프로포즈 데이)
 다. B2B 서비스(할인)
 - 경비 절감(5~60%) : DHL, 코리아, 한국렌탈, KT금호렌터카, 한수지 플라워
 - 직원 복지(15~50%) : 슈퍼리어, 그랜드힐튼호텔, 전남관광, 드림성모인과
 담당자 | KLPGA 업무지원팀 김유중 대리(02-560-4422), 노희연 사원(02-560-4427)
 기타 | 1) 매월 교육프로그램 및 일정 안내 : KLPGA뉴스 게시판에 공지
 2) 사전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차후 1년간 교육 지원 중단
 3) 교육 전 취소자 발생 시 차순위자로 대체



하나카드

기간 | 2008년 ~
 혜택 | KLPGA 플레티늄 카드 부가서비스
 1) 연회비 : 신규 발급 시 초년도 10만 원, 이후 2년 차부터 연회비 평생 면제
 2) 3개월 무이자 할부 : 할부 가능한 전가맹점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
 3)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PriorityPassCard 발급)
 - 플레티늄 카드에 한해 본인/가족 카드 자동 발급
 4) 인천공항 허브 라운지 할인 서비스 : 플레티늄카드 소지 고객 본인 20% 할인
 5) 여행상품 할인서비스 (지정 예약처 : 02-714-3434)
 - 국제선 항공권 7%, 국내선 5%, 해외패키지 7% 할인
 6) 발레파킹 : 인천공항 월 3회(주차비 별도), 특급호텔 월 3회(1일 3시간 무료주차)
 7) 특급호텔 : 10~30% 할인 서비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롯데호텔, 밀레니엄 서울 힐튼 등)
 8) S-OIL 리타당 50원 할인(LPG제외), 횡수 무제한
 -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교환시 할인(2만5천 원)
 9) 영화 할인 서비스(통합 월 1회) : CGV, 메가박스,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
 10) 놀이공원 할인 서비스(통합 연 4회) :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롯데월드, 대전꿈돌이랜드 등
 11) 보험 : 해외여행 최고 5억 원, 휴일교통상해보험 최고 7천5백만 원
 담당자 | 하나카드 플레티늄 고객센터 연락처 | 080-220-5300
 ※ 2014년 6월 1일 신규 발급부터는
 캐슈백 적립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
 ※ 초년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차년도부터는 면제됩니다.
 ※ 하나카드 신규 발급 시에만 초년도 연회비가 청구되며, 기존에 하나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 중 KLPGA 플레티늄 카드를 신청하시면 별도의 연회비는 없습니다.

김기성 세무사

기간 | 2013년 5월 1일 ~
 혜택 | KLPGA 회원 및 가족을 위한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 세무조사 자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기장대행 및 세무컨설팅, 법인, 부가, 소득, 양도, 상속, 증여세 신고대행 및 상담
 문의 | 김기성 세무사 연락처 | 02-516-7745

상금 특별회비 공제규정 변경

구 분	특별회비		상세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회 원	6.0%	6.0%	비회원 특별회비 요율을 회원과 동일한 6%로 변경하여 적용 (2016 KLPGA 제2차 이사회 결의, 2016.01.07)
비 회 원	10.0%	6.0%	

KLPGA, 회원 역량 향상 및 은퇴 후 진로 개발을 위한 ‘공통기본교육’ 시행!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회원 역량 향상 및 은퇴 후 진로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인 ‘공통기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LPGA는 세계 넘버원 투어로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으나, 2천여 명의 전체 회원 중 30%인 약 6백여 명만이 투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KLPGA는 은퇴 후에도 뛰어난 재능을 갖추고 있는 비투어 회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어 프로의 은퇴 후 진로를 개발하기 위한 공통기본교육을 시행하게 됐다. 가천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 교육은 주 1회 8주간 교육과 5일 연속 교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역량과 조직역량, 자격역량의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투어 프로 및 비투어 회원 약 50여 명이 신청하여 수강하고 있다.

5일 연속 과정 교육 첫날인 25일(월)은 KLPGA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대해 배우는 ‘조직역량 교육’과 골프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사업역량 교육’이 시행됐다.

교육을 수강한 회원 중 지난해 드림투어 5차전에서 우승한 바 있는 정희윤(22)은 “평소 심리학이나 경영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회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청하게 됐다”고 말한 뒤, “특히 골프장 경영 쪽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오늘 배우게 돼서 기쁘고 새롭다”고 했다. 이어 정희윤은 “자금은 투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는 것 같다. 앞으로도 비시즌에 좋은 교육이 있다면 시간을 내어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KLPGA는 이번 공통기본교육을 시작으로 회원 진로지원 서비스 등 은퇴 후 진로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KLPGA 강춘자 수석부회장은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원 교육이 투어 및 비투어 여자프로골프 선수들을 전문 인재로 양성하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 KLPGA는 체육인재육성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여자프로골프 분야의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종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으며,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KLPGA, 2016년 첫 대회인 ‘더 달랏 at 1200 레이디스 챔피언십’ 조인식 가져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1월 16일(토), 베트남 달랏에 위치한 더 달랏 at 1200 컨트리클럽에서 ‘더 달랏 at 1200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개최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KLPGA 윈터투어로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KLPGA의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는 정규투어이며, 3월 25일(금)부터 사흘간 2016년도에 열리는 첫 대회로서 힘찬 시동을 건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대회 총상금액은 5억 원이다.

KLPGA투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점차 많은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공동 주관대회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투어로 성장 및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올하는 베트남으로 범위를 넓혀 아시아의 골프 허브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날개를 펼쳤다.

더불어, KLPGA는 본 대회가 양국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시아 전 지역의 골프 대중화와 상호교류에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회 주최사인 센츨리온의 탕케이화 사장은 “세계 최고의 투어 중 하나인 KLPGA 투어와 함께 더 달랏 at 1200 레이디스 챔피언십 개최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베트남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베트남이 골프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증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시에 더 달랏 at 1200 컨트리클럽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KLPGA 강춘자 수석부회장은 “날씨 상황으로 인해 대회가 열리기 어려운 3월에, 이렇게 베트남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 올해 KLPGA투어의 문을 힘차게 여는 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고, 본 대회를 통해 더 많은 KLPGA 대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어 KLPGA가 글로벌 넘버원 투어로 확대 및 발전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의 중계를 맡은 SBS골프는 주관 방송사로서 국내외 골프팬들에게 좋은 화면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해외 대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쿼드스포츠가 본 대회의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본 대회의 스폰서인 센츨리온은 2005년 설립, 현재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주거지, 학교, 사무실 그리고 호텔을 건설하는 부동산 개발 업체이다.

KLPGA 윈터 투어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 with SBS’ 정예나 우승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윈터 투어’ 대회에서 정예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스카이 레이크 리조트 & 골프 클럽에서 열린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 with SBS’ 최종 라운드에서 정예나는 2타를 줄여 함께 3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최가람을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라 우승 상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28살인 정예나는 지난 2006년 KLPGA에 입회해 2부 투어 우승 경력은 있지만 1부 투어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지난 2013년 중국 투어에서 상금왕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는 KLPGA가 처음으로 치른 윈터 투어 대회로 총상금 2억 원, 우승상금 4천만 원을 놓고 43명의 선수가 2라운드 경기를 펼쳤습니다.

윈터 투어는 동계훈련 중인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을 통해 실전에서 기량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KLPGA가 ‘글로벌 투어’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KLPGA 대회가 베트남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다음 달에는 베트남 달랏에서 또 하나의 윈터 투어 대회인 ‘더 달랏 at 1200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KLPGA 정규투어 대회로 열립니다.

(기사제공 – SBS 서대원 기자)



KLPGA 2016시즌 투어 스케줄 발표!



- 역대 최대 대회 수, 최대 상금액 경신
- 신규 대회 4개, 지난해 열린 대회 올해 모두 그대로 열려
- 아시아 허브로서 입지 다지기 위해 해외 공동주관 대회 확대

지난해 많은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하며 인기몰이를 했던 KLPGA투어가 이번 시즌에는 총 33개 대회, 총상금 약 212억 원, 평균상금 약 6억4천만 원 규모로 열린다.

이는 29개로 역대 최대 대회 개최를 기록한 지난 시즌보다 4개 대회가 증가하고, 185억 원이었던 총상금액은 약 27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총상금액은 KLPGA투어 사상 처음으로 200억 원을 돌파했다.

2016시즌 일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개의 신규 대회다. 매년 4월 둘째 주부터 해당연도 국내 첫 대회가 시작됐으나 올해는 3월 둘째 주, 중국에서 공동 주관대회인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2016’으로 힘찬 시동을 건다. 3월 마지막 주에는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더 달랏 at 1200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열린다. 또한, 지난해 서울경제와 함께 대회를 개최했던 문영그룹이 ‘MY 문영 퀸즈 파크 챔피언십 2016’을 신설했고, 드림투어 스폰서로서 KLPGA를 후원해온 카이도가 처음으로 정규투어를 개최한다.

한편, 지난해 열린 29개의 대회가 올해도 빠짐없이 모두 열린다. 7개 대회가 10년 이상 꾸준히 KLPGA투어를 개최하고 있고, 전체 대회의 절반을 넘는 17개 대회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어 신규 대회의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KLPGA를 후원하는 스폰서가 투어 흥행 및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대회 개최 10주년을 맞는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션셔널’의 주최사 에쓰오일은 총상금액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했다.

늘어난 대회 수로 인해 4월에 열리는 ‘제9회 롯데마트 여자오픈’을 시작으로 18주 연속 쉼 없이 대회가 열리며, 이후 명절인 추석 연휴 주를 제외하고는 쉼 고르기를 할 시간이 한 주밖에 없다. 지난 시즌은 16주 연속이 최대였고 2014시즌에는 11주 연속, 2013시즌에는 6주 연속이 최대였다.

글로벌 투어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KLPGA는 이번 시즌 공동 주관대회를 2개 더 늘렸다. 중국에서 열리는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2016’과 ‘더 달랏 at 1200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오는 3월 처음 열린다. 기존 대회인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현대차 중국여자오픈’과 일본에서 개최하는 ‘더퀸즈’까지 총 5개의 대회가 공동 주관 대회로 해외에서 열린다.

2016년도 첫 대회를 앞둔 KLPGA는 매년 총상금액과 대회 수 기록을 경신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6시즌에도 신규 대회와 기존 대회의 꾸준한 개최에 이미 유망 선수들의 활약이 점쳐지며 골프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각종 시스템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최상의 투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KLPGA는 이러한 성장에 그치지 않고, ‘윈터투어 확대’, ‘인터내셔널 웰리파잉 토너먼트 개최’ 등 글로벌투어 도약의 첫 단계인 ‘아시아 골프 허브’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 2016 KLPGA 정규투어 일정표

No.	월	대회명	일정	장소	총상금
1	03월	World Ladies Championship 2016	16.03.10~16.03.13	미션힐스 중국	\$800,000
2	03월	The Dalat at 1200 Ladies Championship	16.03.25~16.03.27	베트남 달랏	500,000,000원
3	04월	제9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16.04.07~16.04.10	롯데 스카이힐 제주	600,000,000원
4	04월	삼천리 Together Open 2016	16.04.15~16.04.17	아일랜드	700,000,000원
5	04월	넥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6	16.04.22~16.04.24	가야	500,000,000원
6	04월	제6회 KG ·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16.04.29~16.05.01	써닝포인트	500,000,000원
7	05월	제3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16.05.06~16.05.08	군산	500,000,000원
8	05월	2016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16.05.13~16.05.15	수원	500,000,000원
9	05월	2016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16.05.19~16.05.22	라데나	600,000,000원
10	05월	티 채리티 오픈	16.05.27~16.05.29	휘닉스프링스	600,000,000원
11	06월	제6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16.06.03~16.06.05	롯데스카이힐 제주	600,000,000원
12	06월	제10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션셔널	16.06.10~16.06.12	엘리시안 제주	700,000,000원
13	06월	기아자동차 제30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16.06.16~16.06.19	베어즈베스트 청라	700,000,000원
14	06월	비씨카드 · 한경 레이디스컵 2016	16.06.23~16.06.26	아일랜드	700,000,000원
15	07월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16.07.01~16.07.03	웨이하이 포인트 중국	500,000,000원
16	07월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16.07.08~16.07.10	용평	500,000,000원
17	07월	BMW Ladies Championship 2016	16.07.14~16.07.17	스카이 72 하늬코스	1,200,000,000원
18	07월	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2016	16.07.22~16.07.24	미정	500,000,000원
19	07월	카이도 코리아 여자오픈	16.07.29~16.07.31	경산 인터볼고	500,000,000원
20	08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16.08.05~16.08.07	오라	500,000,000원
	08월	비어있는 주	16.08.12~16.08.14		
21	08월	BOGNER MBN 여자오픈	16.08.18~16.08.21	더스타휴	500,000,000원
22	08월	2016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16.08.25~16.08.28	하이원	800,000,000원
23	09월	한화금융 클래식 2016	16.09.01~16.09.04	골든베이	1,200,000,000원
24	09월	이수그룹 제38회 KLPGA 챔피언십	16.09.08~16.09.11	미정	700,000,000원
	09월	추석	16.09.16~16.09.18	-	-
25	09월	KDB 대우증권 CLASSIC 2016	16.09.23~16.09.25	엘리시안 강촌	600,000,000원
26	09월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16.09.30~16.10.02	미정	600,000,000원
27	10월	제17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16.10.06~16.10.09	블루헤런	800,000,000원
	10월	LPGA KEB HANA BANK CHAMPIONSHIP	16.10.13~16.10.16	스카이 72 바다코스	\$2,000,000
28	10월	KB금융 스타챔피언십	16.10.20~16.10.23	남촌	700,000,000원
29	10월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16.10.28~16.10.30	드비치	500,000,000원
30	11월	YTN 여자오픈	16.11.04~16.11.06	미정	500,000,000원
31	11월	ADT CAPS Championship 2016	16.11.11~16.11.13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500,000,000원
32	11월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6	16.11.18~16.11.20	레이크사이드	700,000,000원
	12월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16.12.02~16.12.04	-	₩100,000,000
33	12월	2016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16.12.16~16.12.18	하이난 미션힐스	\$550,000

* 위 대회는 전년도 기준으로 발표 했으며, 여러사정에 의해 상금, 일정 및 대회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KLPGA투어 2015시즌을 돌아보다

29개의 대회와 총상금 185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던 2015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그 어느 시즌보다 많은 스타를 탄생시키며 '포스코-조선일보 챔피언십 2015' 대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휴식기를 가졌다. 2015시즌에서의 키워드는 '다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승자들이 대거 탄생했다. 5승을 기록한 전인지를 필두로 박성현, 이정민, 고진영이 각각 3승을 기록했고, 국내투어에 참여한 장하나와 김효주가 각각 2승을 올리며 다승자로 총 6명이 배출됐다. 또 다른 키워드는 '도약'이다. KLPGA는 글로벌 넘버원 투어로의 도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유관 단체들과 교류를 가지며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JLPGA, ALPG, LET와는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를 통해 4개 대회 투어대항전이라는 새로운 이벤트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2015년 처음으로 'KLPGA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개최하면서 외국인 선수가 KLPGA투어 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일본, 호주, 대만,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참가해 1명의 선수가 KLPGA 인터내셔널 투어멤버로 입화하였고, 이에 발맞춰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KLPGA투어 2016시즌을 점치다

2016시즌 스케줄 발표를 마친 KLPGA투어는 2016년 33개의 대회가 열리며 총상금은 212억 원으로 KLPGA 사상 처음 2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LPGA는 이미 확정된 2개의 윈터투어와 해외공동주관대회 등을 통해 글로벌 넘버원 투어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KLPGA투어를 볼 수 있기를 기다렸던 수많은 골프팬은 첫 정규대회가 3월로 앞당겨진 KLPGA 2016시즌을 학수고대하며 기대하고 있다. 매 대회마다 구름 같은 갤러리와 높은 시청률로 KLPGA에 대한 골프팬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2015 시즌을 되돌아보며 흥했던 스타들을 살펴보고 2016 시즌을 이끌어 나갈 선수들을 알아본다.

KLPGA 2015시즌 5승, 그리고 3대 투어 메이저대회 챔피언, 여왕 전인지



연습'에서 우승하며 KLPGA 메이저대회 2승을 달성한 전인지는 이외에도 LPGA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과 JLPGA 메이저대회 '살롱파스컵 일본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3대 투어 메이저 타이틀을 한 해에 거머쥔 최초의 선수가 됐다. 올해부터 국내무대가 아닌 LPGA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뛰고 있는 전인지는 첫 출전한 '코츠 골프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2015시즌 막판처럼 부상에 시달리지 않도록 체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시즌을 보낸다면 롱, 미들, 쇼트게임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전인지가 신인왕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드라이버 비거리 1위로 시즌 3승을 달성한 신홍 강자 박성현



서 우승을 기록하면서 시즌 3승을 챙기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KLPGA 2015시즌은 전인지를 위한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전인지는 상금 부문에서도 913,760,833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시즌 5승을 기록하며 다승왕 타이틀은 물론 70.56타로 최저타수상까지 거머쥐며 여왕의 자리에 올랐다. '제16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과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KLPGA 메이저대회 2승을 달성한 전인지는 이외에도 LPGA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과 JLPGA 메이저대회 '살롱파스컵 일본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3대 투어 메이저 타이틀을 한 해에 거머쥔 최초의 선수가 됐다. 올해부터 국내무대가 아닌 LPGA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뛰고 있는 전인지는 첫 출전한 '코츠 골프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2015시즌 막판처럼 부상에 시달리지 않도록 체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시즌을 보낸다면 롱, 미들, 쇼트게임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전인지가 신인왕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2015시즌을 기점으로 신홍 강자로 자리매김한 박성현은 시즌이 종료된 후 진행되었던 비공식 이벤트 대회인 'ING생명 챔피언스 트로피' 싱글매치에서 세계 랭킹 2위 박인비를 만났지만 특유의 자신감과 드라이버 비거리를 앞세워 승리했다. 또, 4개 투어대항전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에서는 일본 간판 스타 우에다 모모코를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다시 한 번 이름값을 높였다. 화려하게 비상한 박성현은 장타라는 큰 무기에 정확한 아이언샷과 쇼트게임,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을 장착하면서 어떤 상대가 와도 자신만의 게임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6시즌 개막전인 '2015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2016시즌의 시작이 좋은 박성현이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전인지의 뒤를 잇는 여왕이 되어 KLPGA투어 흥행의 주역이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평균타수, 그린적중률 3위, 꾸준한 활약을 펼친 조윤지



조윤지에게 2015년 키워드는 '부활'이다. 조윤지는 지난 2010년 데뷔하자마자 '볼빅 라일랜스코트 여자오픈 J골프 시리즈'에서 우승하며 신인왕을 차지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차세대 KLPGA 스타는 조윤지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후 조윤지는 5년 동안 깊은 슬럼프에 빠져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2015년 조윤지는 달랐다. 5월에 열렸던 '티 채널티 오픈' 최종라운드에서 8연속 버디를 낚아 KLPGA투어 사상 최다 연속 버디 신기록을 세우며 3위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바로 다음 대회인 '제5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에서도 3위를 차지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다. 그 후 7월에 열린 시즌 최대 상금 규모의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초대 챔피언에 오르며 3억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고, 메이저대회인 '제16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2위에 오르며 골프팬의 마음속에 조윤지 이름 석 자를 다시 한 번 새겼다. 이후에도 꾸준히 리더보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조윤지는 2015년 654,062,500원의 상금을 획득하며 상금

부문에서 3위를 기록했다. 개인 기록에서도 평균타수와 그린적중률 부
문에서 3위를 기록했고, 드라이버 비거리도 8위에 자리하며 자신의 가
치를 증명했다. 부활한 조윤지는 2016시즌을 함께할 새로운 후원사인
NH투자증권을 만났다. 새로운 곳에 동지를 틀게 된 조윤지가 열렬한 지
원에 보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성현과 함께 KPGA 무대
를 누빌 조윤지의 2016시즌을 기대해본다.

그린적중률,
평균타수 2위, 시즌 3승
이정민



대상포인트 4위, 상금 642,437,917원을 벌어들이며 상금순위 4위를 기록
한 이정민은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시즌 초반의 컨디션이 고진영과 함
께 가장 좋았던 이정민은 전인지의 독주를 견제하며 2015시즌 가장 먼
저 3승 고지를 점령했고, '이정민 돌풍'을 예고하기도 했다. 솔로 스타터
라는 평가를 받던 이정민은 5월에만 '201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
십'과 '더 챗리티 오픈', 두 개의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2015시즌 상반기
의 흥행을 주도했다. 하지만 6월 7일 막을 내린 '제5회 롯데 칸타타 여자
오픈' 이후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
아쉬운 것은 불안한 티샷이다. 기록을 통해 바라본 이정민은 불안정한
티샷이 보완된다면 더 좋은 활약이 가능한 선수이다. 그린적중률 78.28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정민의 페어웨이 안착률은 76.38로 46위를 기록
하고 있다. 페어웨이 안착률이 높아지면 더 좋은 상황에서 두 번째 샷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아이언 샷을 가지고 있는 이정민이라면 핀과 가깝게
붙여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2016시즌에는
다소 불안한 티샷과 퍼트를 보완하고 체력적 부담이 극대화되는 승부처
에서 조금 더 집중한다면 박성현, 조윤지와 함께 치열한 경쟁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2년차 징크스는 없다.
페어웨이 적중률 1위, 상금순위 5위
고진영



영화나 드라마에서 필요한 것은 주연만이 아니다. 흥행하는 영화들은
최고의 주연과 함께 '컷스틸러'라고 불리는 감초 역할이 항상 함께한다.
2015년 KPGA투어가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같다. 전인지의 최고의
활약과 더불어 박성현, 이정민 그리고 고진영이 각각 3승씩을 거두면서
경쟁 구도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고진영은 4월 말에 치러진 시즌 4번째 대회였던 '넥센 · 세인트나인 마
스터즈 2015'와 5월 초에 있었던 6번째 대회 '제2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에서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가장 먼저 다승을 기록했고 화려하
게 비상했다. 이후 2015시즌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 될 즈음 '조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에서 우승하여 시즌 3승째를 기록하며 자신
이 건재함을 알렸다.
하지만 고진영은 하반기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며 부상이 찾아왔고 그
후로 우승컵을 거머쥐지 못했다. 부상 중에서도 투혼을 발휘하며 시즌을
무사히 마무리한 그녀는 지난 12월에 열린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대회 마지막 날 싱글 매치에서 첫 번째 주자로 나서 귀중한 승리를 기록
했다. 비록 KPGA투어가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그녀의 승리로 JPGA와
마지막까지 명승부를 펼칠 수 있었다. 고진영은 2015시즌을 데뷔 2년 차
징크스 없이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부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체력
분배에 신경을 쓰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2016시즌에는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골프팬은 고진영이 이제 감초가 아닌 여왕
이 될 수 있는 해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신데렐라의 탄생과
감동의 순간들

2016시즌의 기대주는
이들만이 아니다

역대 최고의 경쟁이 펼쳐질 무대,
KPGA투어

2015시즌에 생애 첫 승을 거둔 선수들도 잠재적인 기대주라고 할 수 있다. 'KDB 대우증
권 클래식'에서 생애 첫 승을 거두면서 기세를 몰아 시즌 3승을 거둔 박성현을 비롯해
'BOGNER MBN 여자오픈' 우승자 하민송, '한화금융 클래식 2015'의 노무라 하루, 'ADT
CAPS Championship 2015'에서 첫 우승을 기록한 오지현, 그리고 '조선일보-포스코 챔피
언십 2015'에서 늦깎이 우승을 기록한 최혜정2까지 신데렐라의 반열에 올랐다. 박성현을 제
외하고 아직까지 이들은 우승을 추가하지 못했다. 통산 2승 그리고 시즌 다승을 위해 구슬
땀을 흘리고 있을 2015시즌 신데렐라들의 2016년도 활약이 기대가 된다.
또한, 역경의 시간을 딛고 감격적인 우승을 기록하며 보는 이들의 코골을 찡하게 했던 안신
애와 김혜윤 역시 2016시즌의 기대주들이다. 안신애는 '2010 하이원 리조트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 후 5년 만에 메이저 대회인 '이수그룹 제 37회 K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김혜윤 역시 2011년 '현대 차이나 중국 여자오픈'에서 기록한 우승 이후로 약 4년 만에 '서
울경제 · 문영권즈파크 레이디스 클래식'의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생애 통산 5승을 기록해
골프팬들에 감동을 선사했다. 다시 우승의 맛을 본 안신애와 김혜윤의 2016시즌 활약도 기
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드림투어에서 올라온 상위 6명(박지연, 김아림, 정슬기, 곽보미, 최민경, 김정수2)과
2014 국가대표 선발전 1위, 시드순위전을 1위로 통과한 이효린 역시 2016시즌 KPGA투어
를 흔들만한 저력을 가졌다.
특히, 드림투어 상금왕을 기록하여 정규투어 입성이 확정되며 삼천리의 후원을 받고 있는
박지연에게 골프계가 거는 기대는 크다. 179cm로 KPGA투어 선수 중 가장 장신인 박지연
은 장타와 함께 정확도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드림투어에서 평균타수 1위,
토폰피니시율 2위를 기록한 박지연은 20개의 드림투어에 모두 참가하여 18개 대회에서 컷
을 통과하는 저력을 보여주며 강철 체력을 자랑했다. 2016시즌의 개막전인 '2015 현대차 중
국여자오픈'에서 데뷔를 한 박지연은 5위를 기록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 시드순위전을 1위로 통과하고 미래에셋에서 후원을 받게 되어 이슈가 된 이효린도 최
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주니어 무대에서부터 이름을 날리며 국가상비
군으로 발탁되고, 고등학생이 돼서는 국가대표로 뽑혀 2년간 태극마크를 단 이효린은 전형
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선수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이 있는 이효린이
2016년에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2015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으로 2016시즌은 벌써
개막됐다. 지난 주에는 이벤트성 대회인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 with SBS'가 성황리에 마
무리 됐고, 3월에는 2016년 KPGA 첫 정규대회인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과 '더달랏 at
1200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열린다. 그 후는 국내에서 정규 대회를 통해 별들의 전쟁이 벌
어질 예정이다. 누가 가장 먼저 경쟁에서 이기고 정상에 올라올지 벌써부터 골프팬의 관심
이 쏠리고 있다.
2016시즌은 그동안 활약해 온 선수들의 노련함과 풍부한 경험, 새롭게 올라온 신성들의 패
기와 뜨거운 열정이 함께 어우러져 KPGA투어 흥행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분
명한 것은 2015시즌보다 더욱 치열해지고 흥미로운 KPGA투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KLPGA를 알리다, 말하다, 함께하다! 역대 홍보모델 활약상



매 시즌마다 KLPGA는 정규투어에 활약하고 있는 선수 중에서 홍보모델을 선정해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다. 홍보모델 선정은 KLPGA투어 상금순위 50위 이내의 선수 중 언론사, 타이틀스폰서, KLPGA 회원 투표에 의해서 정해져 왔다. 2009년부터 각 해마다 홍보모델로 뽑힌 약 10명의 선수들이 KLPGA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1년간 KLPGA 홍보에 앞장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글 _ 김소현

변신 또 변신!

콘셉트 촬영 이미지로 차별화 된 홍보제작물

홍보모델은 첫 활동으로 KLPGA 각종 홍보제작물에 활용될 사진 촬영의 시간을 가진다. 골프웨어 외에도 정장이나 캐주얼, 드레스, 한복, 단체복 등 평상시 볼 수 없었던 의상을 입고 다양한 콘셉트로 촬영을 진행한다. 필드 위가 아닌 색다른 선수들의 모습은 골프팬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었다. 홍보모델에 선정된 선수들은 재치 있는 포즈를 취하는 등 각자만의 매력을 발산하며 촬영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제7대 홍보모델은 처음으로 골프장 야외촬영을 진행해 골프 선수의 성격을 살린 이미지를 완성했다. KLPGA는 매년 새로운 콘셉트의 홍보모델 사진을 공개해 사진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촬영을 마친 사진은 콘셉트 별로 활용돼 홍보물로 제작된다. 먼저 매달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월페이퍼에 선수들의 개인 사진과 단체 사진, KLPGA 로고 및 엠블럼 등을 담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차례대로 공개하고 있다. 특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 쪽 면에 KLPGA 정규투어 일정이 보이게 디자인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등 매년 발전된 월페이퍼를 선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제작된 스크린세이버(화면보호기) 역시 개인 사진과 단체 사진, KLPGA 로고 등을 활용해 디자인됐다. 컴퓨터가 커진 상태에서 일정 시간동안 키보드나 마우스의 아무런 입력이 없을 때 작동되는 스크린세이버에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어 이미지에 생동감을 더했다. 연말에는 캘린더 및 연하장을 제작해 회원을 비롯해 스폰서, 협력사 등에 배포되고 있다. 여러 콘셉트의 이미지를 한데 담고 있는 캘린더는 다양한 선수들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기에 꾸준히 호평받고 있다. 2016년 캘린더는 날짜가 적힌 달력 판과 선수의 개인 이미지를 분리한 획기적인 디자인을 선보여 활용도를 높였다.

2015 제7대 홍보모델 이미지를 활용한 KLPGA 홍보제작물



월페이퍼



캘린더



연하장

모두가 함께하는 KLPGA, 골프문화 만들기

KLPGA는 매년 홍보모델과 함께 여러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KLPGA투어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대회장을 방문하는 갤러리가 많아졌지만 관전하는 갤러리 응원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투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2009년부터 KLPGA는 '올바른 응원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홍보모델이 직접 참여한 영상과 홍보물을 제작했다. 2009년에는 캠페인 내용이 담긴 부채를 약 5천 개 제작하여 대회장을 찾은 갤러리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부채 앞뒷면에는 제1대 홍보모델 10명의 얼굴과 관전 시 갤러리 유의사항을 넣어 에티켓의 중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됐다.

2014년에는 '골프 대중화와 올바른 골프문화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위해 제6대 홍보모델과 함께 총 3편의 영상을 제작했다. KLPGA와 SBS골프가 공동 제작한 이 캠페인 영상은 대중의 관심과 호응을 한층 더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첫 번째로 공개한 'YOU ARE THE BEST GALLERY'편은 올바른 관전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갤러리 에티켓을 코믹한 상황극으로 꾸몄으며, 홍보모델이 직접 연기에 도전해 재미를 더했다. 두 번째 캠페인 영상인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KLPGA'편은 필드 위에서 홍보모델의 감동 순간과 더불어 선수와 팬들이 하나 된 모습을 담아냈다. 세 번째는 'KLPGA 로고송 함께 부르기'편으로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함께 어우러진 홍보모델의 목소리는 친근함을 더하였고, 세계로 널리 뻗어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사에 담아 표현했다.

지난 2015년에는 제7대 홍보모델과 함께 '골프 대중화 및 팬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위해 총 3편의 영상을 공개했다. 첫 번째 영상으로는 제7대 홍보모델 중 고진영, 김혜윤, 홍란이 참여한 '찾아 나눔, 희망을 함께 나눔, 크게 나눔'편으로 세 가지 나눔을 통해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KLPGA를 녹여냈다. 두 번째는 재작년에 이어 '로고송 함께 부르기' 2편으로 홍보모델 전체가 필드에서 나와 KLPGA 로고송을 함께 부르며 발랄한 모습을 담았다. 마지막 영상은 '필드로 떠나는 행복 나들이, 함께해요 KLPGA'편으로 대회 현장에서 선수와 함께 호흡하며 경기를 즐기는 행복한 가족의 영상을 화면에 담아 공감을 이끌어냈다.

홍보모델과 함께한 캠페인은 대중의 관심은 물론 팬과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갤러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골프문화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품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시간, 동계봉사활동

KLPGA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동계봉사에도 홍보모델의 활동은 이어졌다. 홍보모델들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더하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왔다. 특히 홍보모델 선수들은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져 뜻을 모았다. 살갓을 부딪치며 가장 가까워서 온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도 의미가 남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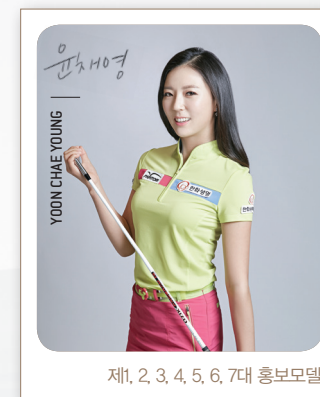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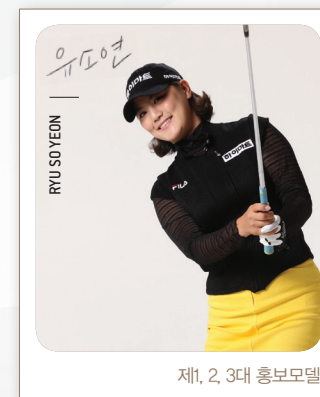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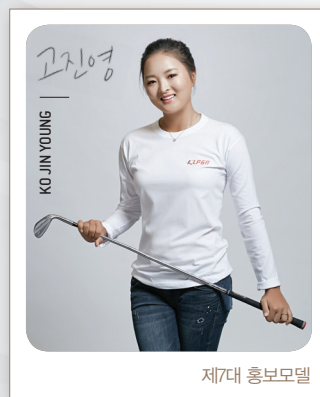
봉사시간 동안 선수들은 아이 또는 장애인의 학습 지도자가 돼주기도 하고, 놀이 친구가 돼주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뿐만 아니라 대청소, 식사 배식, 음식 만들기 등 의미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홍보모델들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몸이 불편한 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외에도 홍보모델들은 대외적으로 KLPGA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징검다리가 되기도 하며, 대중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다. 대회 때 진지한 선수의 모습이 아닌, 필드 밖에서 친근한 모습은 인간미가 느껴진다. 현재 2016시즌 KLPGA 홍보에 앞장설 제8대 홍보모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올시즌 역시 활발한 홍보 활동으로 KLPGA 이미지 제고에 힘쓰는 한편, 대중들과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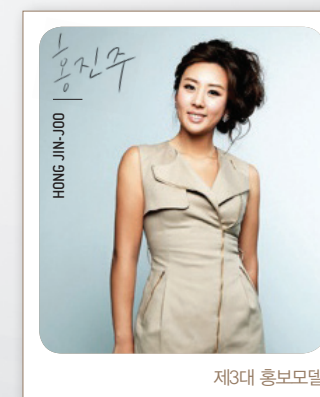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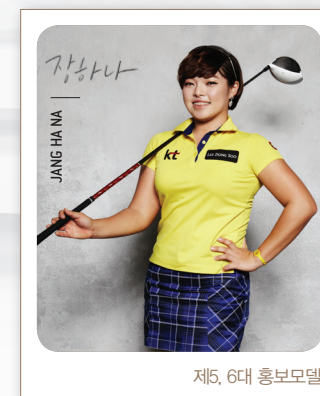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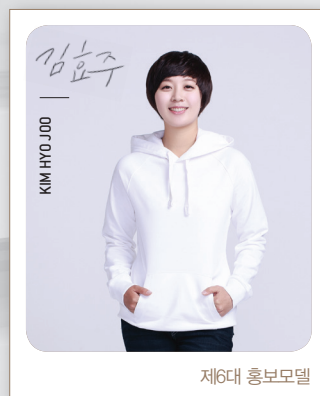
가장 오랜 시간

홍보모델을 역임한 선수는 누구?

2009년 제1대 홍보모델이 발표된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홍보모델로 선정된 선수는 바로 윤채영이다. 그동안 윤채영은 매시즌마다 KLPGA투어에서 활약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끊임없는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윤채영은 7년간 KLPGA 홍보활동에도 앞장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외에도 김하늘은 제1대부터 6대까지 홍보모델로 뽑혀 6년 동안 활동했으며, 홍란은 제6대만 제외하고 모두 선발돼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김혜윤과 김자영2는 현재까지 다섯 번 홍보모델로 발탁되어 KLPGA 홍보를 위한 활동에 동참했다.



“함께해요 KPGA”



선수와 골프팬의 징검다리

꽃보다 ‘KLPGA 명예기자’

‘단지 골프를 정말 좋아해서’ KLPGA 명예기자들이 하나 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서로 각자 다른 전문분야에서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선수와 골프팬의 소통창구가 되어주고 있다. 지난해 제3기 KLPGA 명예기자로 활동했던 김윤성, 박세경, 윤일기, 이병준 기자가 말하는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

글 _ 김소현 사진 _ 강권신

진정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 KLPGA 명예기자

‘골프’라는 연결고리 하나로 KLPGA와 인연이 닿은 사람들, 바로 명예기자다.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골프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모였다. 이들은 서류심사와 면접 전형 등을 통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발탁돼 한 해 동안 각종 대회장 및 행사장을 방문, 취재하며 SNS와 블로그 등의 매체 활동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수한 활동을 통해 재위촉된 4명과 신규 선발된 4명을 포함한 총 8명이 제3기 명예기자로 새로 개설된 명예기자 게시판과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사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활동에 많은 기여를 했다.

1기 때부터 3년간 KLPGA 명예기자로 활동해온 박세경 기자의 본 직업은 방송국 PD다. 직업 특성상 전문 공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기에 처음 명예기자에 지원하기 쉽지 않았다고, “골프를 워낙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보니 이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싶었어요. 명예기자로 활동하다보니 다른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만나 한 주제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올해 처음 활동한 윤일기 기자는 현재 대학교 교수다. “대학교 시절 한 때,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꿈을 이룬 셈이죠.(웃음) 골프를 워낙 좋아하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여 글을 쓰고 사진을 찍으면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명예기자로 활동하면서 선수와 골프팬 모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현재 인기 골프 블로거로 활발한 활동 중인 이병준 기자는 생생한 대회 현장을 전달하고 싶어 명예기자에 지원했다. “예전에 블로거로서 대회장에 방문했었을 때 기자 분들이 부러웠어요. 대회장 안팎으로 세세한 장면들을 담고 디테일한 상황을 SNS를 통해 골프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골프팬과 친근한 소통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

제3기 명예기자들은 매달 모여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 지난달 활동사항과 다음달 계획 및 대회 스케줄을 체크하고 취재 시 명예기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검토한다. 또한 각자 다루고자 하는 취재 테마를 공유하고 모두의 생각을 취합하기 위해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명예기자는 선수와 팬들 사이를 더욱 가까이 만들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때문에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소식과 정보가 아닌 그 외에 것에 관심을 갖고, 골프팬의 관점에서 궁금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취재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반 기자들처럼 기록하는 기사, 보여주는 사진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취재하고 싶은 테마를 자유롭게 표현해 독자의 호응을 쉽고 빨리 끌어내고자 애쓰고 있다.

명예기자는 팬들과 SNS 또는 블로그 등으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일반기자들보다 편히 교류할 수 있는 장점을 심본 활동해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제공하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앞으로도 명예기자들은 팬들과 활발한 왕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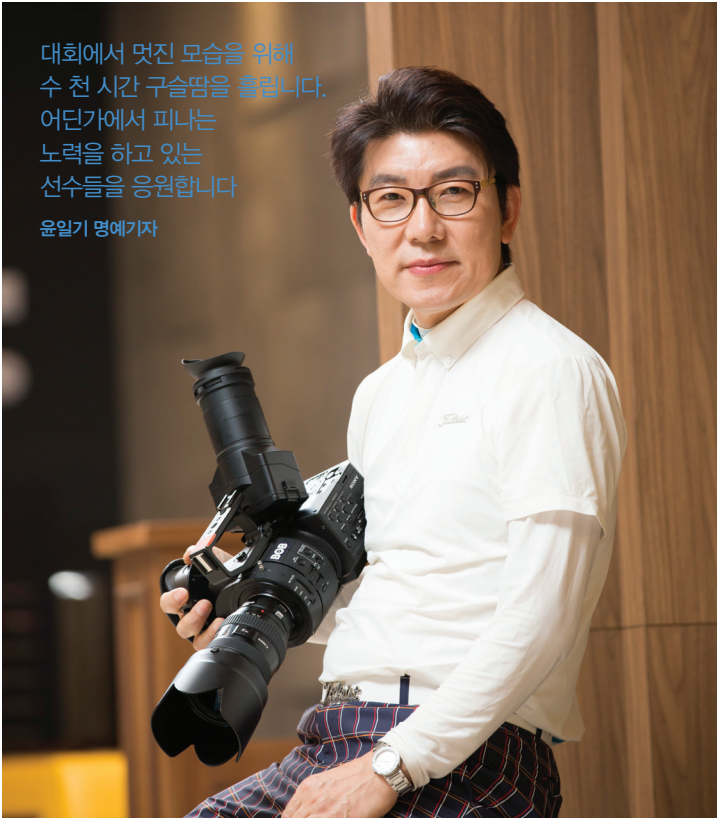




올시즌 대회도 많아졌는데
정규투어, 드림투어,
점프투어의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멋진 경기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김윤성 명예기자



선수 뒤에서 끊임없이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열정과 노력.
선수가 강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박세경 명예기자



대회에서 멋진 모습을 위해
수 천 시간 구슬땀을 흘립니다.
어딘가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윤일기 명예기자



골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들과 다양한 매체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준 명예기자

‘신인선수들의 간절함, 노력과 열정’

김윤성 명예기자 취재 뒷이야기

김윤성 기자는 3년간 KLPGA 명예기자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로 ‘고덕호 프로 인터뷰’를 꼽았다. 골프에 관심을 갖게 될 무렵, 고덕호 프로가 쓴 서적을 보며 골프를 배워나갔다고, 인터뷰가 성사되기까지 조금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고덕호 프로와의 만남은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단다. 팬이 아닌 KLPGA 명예기자로 다가가 골프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에 더욱 특별했을지도 모른다.

지난해 김윤성 기자는 미래 KLPGA의 동력이 될 주인공들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나섰다. 정규투어에 진출한 루키 36명 인터뷰를 시작으로 드림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선수 모두가 정규투어에 진출하거나 시드권을 유지하고 싶은 간절함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다음 취재의 기회가 생긴다면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는 선수들’, ‘정규투어 루키에서 2년 차로 성장한 선수들’ 등 선수에 대한 테마를 설정해 기사를 다뤄보고 싶다는 의지를 더했다.

‘강인한 선수를 만든 골프대디, 골프맘’

박세경 명예기자 취재 뒷이야기

박세경 기자가 골프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취재 차 방문했던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였다. 당시 국가대표였던 김지희의 어머니와 우연히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김지희를 밀착취재하게 되었던 것. 골프에 대해 전혀 몰랐던 박세경 기자였지만 김지희와 그의 어머니에게서 엿볼 수 있었던 열정과 노력의 모습에 마음을 휘어잡혔다고 한다. 프로전향 후, 대회장에서 다시 만났던 어머니는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다. 여전히 백팩을 맨 채 18홀을 함께 이동하며 소리 없이 딸을 응원하고 있었다. 이에 박세경 기자는 명예기자로서 골프대디, 골프맘처럼 선수 뒤에서 언제나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가족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더불어 선수만을 위해 응원하는 팬, 갤러리에 대한 주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팬클럽을 운영하면서 응원도구, 현수막 등을 제작해 선수를 응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일 거예요. 오로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를 위해서 응원하는 순수한 마음은 분명 선수들에게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이처럼 박세경 기자는 가족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다고 한다.



박세경 기자의
KLPGA 미디어 가이드 북
미디어 기자들을 위한 가이드 북.
KLPGA 명예기자라면 모름지기
꼭 지니고 있어야 할 필수품~

‘대회 연습장에서 바라본 선수들의 인간미’

윤일기 명예기자 취재 뒷이야기

윤일기 기자는 대회 연습장의 선수들 모습에 매료되었다. 대회 때 볼 수 있는 진지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과는 달리 연습장에서 마주친 선수들은 지극히 인간적이었기 때문이다. “대회 연습장은 편안한 분위기와 동시에 자신의 플레이에 몰입하는 긴장감이 함께 공존하는 장소예요. 모순적인 분위기 속에서 보여지는 선수들의 인간미는 매우 아름다웠어요.” 구슬땀을 흘리며 오로지 자신의 플레이에만 집중하며 연습하다가도 가족이나 코치, 동료들과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선수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다. 윤일기 기자는 명예기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시도할 수 있었다고 말을 더했다. 앞으로 명예기자로서 취재의 기회가 생긴다면 사진 장비를 이용해 골프팬들에게 신선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단다. 최근 슈퍼 슬로우모션이라는 초고속 카메라를 구입한 윤일기 기자는 중계방송에서도 잡아내지 못하는 선수들의 생생한 순간을 담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회현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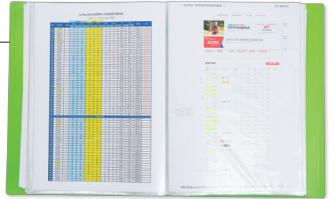
윤일기 기자의
간식거리
틈틈이 배를 채울 간식을 잊지 않으셨나요?
배고픈 것만큼 힘든 것은 없다.
18홀의 동반자 간식거리.

‘대회장 나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갤러리 문화’

이병준 명예기자 취재 뒷이야기

이병준 기자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갤러리 문화’였다.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대회장을 방문하는 갤러리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가족 단위로 대회장을 찾는 갤러리들이 많아졌어요. 예전 불로거로 대회장에 들어섰을 땐 경기에만 초점을 뒀었는데 그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 행복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대회 관람도 즐기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갤러리는 이병준 기자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마치 소풍을 나온 것과 같은 모습에서 골프의 인기를 다시 한 번 실감했다고 한다.

더불어 골프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많아진 만큼 KLPGA 명예기자의 활동도 더욱 활성화되고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이병준 기자는 명예기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도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 중인데, 최근에는 KLPGA 명예기자에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올린 정보들을 통해 사람들이 공감하고 재밌어한다면 그것만큼 뿌듯한 일이 없어요. 골프팬의 시점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남들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것이 명예기자의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이병준 기자의
취재파일
취재 전 꼼꼼히 대회 스케줄 및
특이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기본.
색색이 형광펜으로 체크해 둡시다!

우승자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의 징표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는 각양각색의 ‘트로피 이야기’



땀과 노력이 얹혀 일궈낸 정상의 자리, 그리고 트로피를 한 아름 감싸 안는 달콤한 기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승자에게는 특별한 순간일 것이다. 무조건 단 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는 트로피. 모양부터 색깔, 크기까지 모두 다른 각양각색의 트로피 이야기를 시작한다.

글 _ 김소현 자료협조 _ galaxia SM, 이데일리, 스포티즌, WizGolf



승자를 위한 축하, 트로피가 되다

우승자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의 징표, ‘적을 이긴 표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트로피는 그리스어인 트로파이온(tropaion)에서 유래됐다. 승자에게 트로피를 전달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전투에 승리한 자에게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형태에서 발전되어 현대에 들어 승자와 패자가 구별되는 스포츠에 적용된 것이다. 큰 컵 모양의 형태와 양쪽에 달려있는 손잡이, 흔히 ‘트로피’라면 떠오르는 이미지다. 이는 18세기 초 영국의 앤 여왕이 승마대회 우승자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수 있도록 컵 모양의 트로피를 하사 하면서 현재 트로피의 일반적인 모습이 됐다.



골프에서 우승 트로피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16년, 현재의 USPGA챔피언십으로 발전된 대회의 트로피다. 당시 백화점 재벌로 유명했던 존 워너메이커의 상속자 로드먼 워너메이커가 자신의 돈을 상금으로 걸고 개최된 이 대회의 트로피는 어린아이 키만큼의 은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모습이었다. 처음엔 우승자들이 1년간 트로피를 보관하고 반납하는 형식으로 트로피가 수여됐으나 1923~1927년까지 4연패를 달성한 월터 헤이건이 텍사에서 트로피를 분실하는 일이 생기고 난 후, USPGA는 매년 우승자에게 기존의 트로피와 똑같이 만들어 수여하기 시작했다. 이런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Tip



트로피와 함께 수여되는
‘우승자 재킷’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현재 우승자 재킷을 뜻하는 ‘그린재킷(Green Jacket)’은 1939년 오거스타내셔널 골프클럽의 회원들이 갤러리와 구별하기 위해 입었던 것이 시초다. 이후 1949년 마스터스 대회의 우승자에게만 그린재킷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우승자를 표함과 동시에 골프장의 명예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의미기도 했다. 첫 우승자였던 샘 스미스가 이듬해 다음 우승자에게 그린재킷을 전달하면서 우승 세리머니처럼 정착된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많은 골프대회에서 트로피와 함께 그린재킷이 수여되고 있다. 현재는 다양한 디자인과 칼라를 접목시킨 그린재킷이 등장하면서 우승자를 돋보이게 만들어 준다. KPGA투어의 우승자 재킷은 대부분 대회 스폰서의 CI 타이틀 색상과 동일한 색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의 우승자 재킷은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과 장수의 철갑옷에서 모티브를 따 여전사의 느낌을 담았으며, 지난 시즌 새롭게 공개한 YTN·볼빅 여자오픈의 우승자 재킷은 세계적인 한복디자이너 이영희 선생의 작품으로 앞여밈에 색동과 누빔으로 장식해 한복저고리의 이미지를 살렸다.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의
우승자 재킷 ▶



가지각색, 개성 넘치는 KLPGA투어 트로피

골프 대회가 많아지면서 각 대회만의 특성을 담아내거나 스폰서의 성격을 나타내는 등 개성 있는 트로피들이 생겨났다. 유명 예술가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트로피들은 더 이상 우승자들을 축하하는 징표에만 그치지 않는다. 시즌마다 대회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KLPGA투어의 트로피 또한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동일대회지만 매년 새로운 디자인의 트로피를 선보이며 골프팬들의 눈을 사로잡는 대회도 있다. 영광의 우승자 품에 안긴 다양한 모양의 트로피를 살펴보자.

1

기존의 모습 그대로, '컵 트로피'

국내 대회의 트로피는 양쪽에 큰 손잡이가 귀처럼 달린 컵 형태가 일반적이다. 대부분 흡사한 모양 같아 보이지만 트로피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디자인은 천차만별이다. KLPGA 대회 중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KLPGA 챔피언십'의 트로피는 뚜껑에 은으로 된 골프공 장식으로 골프대회의 상징성을 담았다.

또 다른 메이저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의 트로피도 골프공 장식이 가미됐다. 특히 이 트로피는 처음 공개 당시 기존의 트로피보다 큰 크기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의 트로피는 국내 최초로 세계적인 보석 브랜드 티파니(Tiffany&Co.)에서 제작을 맡아 특별함을 더했으며,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컵 모양의 '티 캐리티오픈'의 트로피는 체코의 숙련된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100% 핸드메이드로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녹여냈다.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은 지난 시즌 국내 대회 중 유일하게 황금 색상의 트로피를 선보이며 고급스러움을 담았다.

트로피의 유래처럼 트로피에 술이나 음료를 따라 마시는 세리머니가 이어지는 대회도 있다. '하이트진로 챔피언십'과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는 우승자가 트로피에 담긴 맥주, 물을 마시면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2

한국의 미를 살린 '도자기 트로피'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조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YTN·볼빅 여자오픈'의 트로피는 한국의 미가 담긴 도자기 모양이다. 2004시즌 한국에서 열린 USLPGA 'CJ 나인브릿지 클래식 프리젠티드 바이 스포츠투데이'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도자기 트로피는 큰 호평을 받았다. 이후 다양한 디자인의 도자기 트로피가 선보여지고 있다.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은 2010~2015시즌까지 주둥이가 넓적한 호리병 모양의 도자기 트로피가 인상적이었다. 2010시즌에는 빨간 색상의 트로피였지만 2011시즌부터 파란색으로 변경해 승리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올시즌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서는 도자기가 아닌 새로운 모습의 트로피를 공개했지만, 도자기 트로피를 수여하는 대표적인 대회 중 하나다.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또한 도자기 트로피를 수여하는 대표적인 대회다. 1회 때부터 무형문화재 도봉 김윤태 선생의 도예 작품에 골프화가 김영화 화백의 골프장 그림으로 예술과 골프의 하나 됨을 담아낸 트로피다. 특히 김영화 화백이 직접 손으로 제작하기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YTN·볼빅 여자오픈'은 추석에 개최하는 대회 시기 특성에 맞춰 한국의 전통을 상징하는 도자기 트로피를 선택했으며, 지난 시즌 첫 개최된 '조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에서도 파란 청자 모양의 트로피로 다른 대회와의 차별화를 뒀다.





3

대회의 타이틀을 축약시킨 '형상화 트로피'

대회를 대표하는 이미지 또는 대회 스폰서를 상징하는 모양의 트로피도 있다. 회사의 로고나 사업내용을 담아내거나 대회 로고를 본떠 트로피를 제작하기도 한다.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의 트로피는 대회 스폰서인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모양과 대회가 개최되는 중국 웨이하이 포인트 컨트리클럽의 클럽하우스 실제 모양을 트로피에 절묘하게 담아냈다.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의 트로피는 두산중공업의 터빈 블레이드 사업에 초점을 맞춰 터빈 날개(Blade) 모양을 표현해 곡선미를 살리는 동시에 여성 골퍼들의 스윙을 연상케하는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ADT CAPS Championship'의 트로피는 대회 스폰서인 ADT 캡스의 대표 C를 딴 팔각형의 와펜 모양을 형상화했으며, '넥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즈'의 트로피는 대회 스폰서 세인트나인의 멘탈메이트 '자신감'을 담은 사자 형상에 우승자를 상징하는 위너(Winner)의 약자 'W'자를 바탕으로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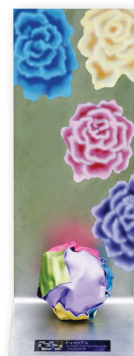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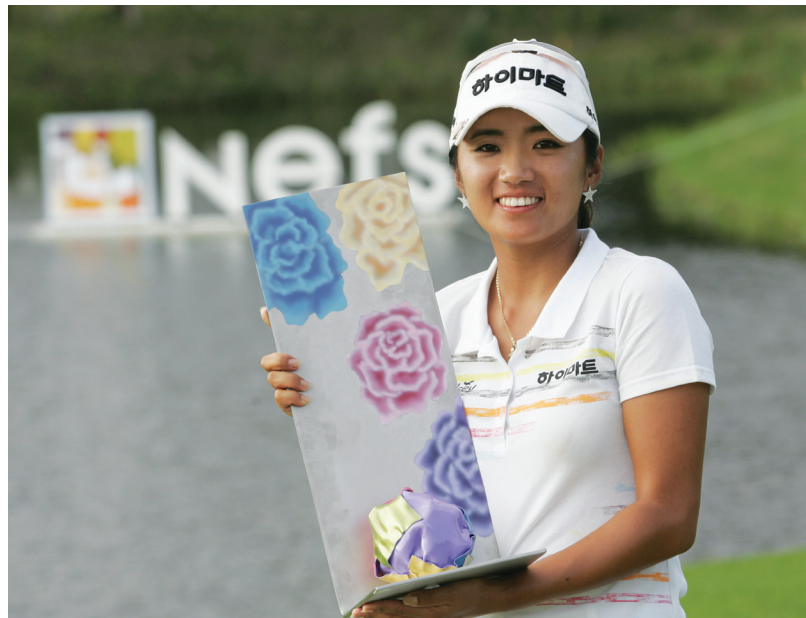
이외에도 'BMW Ladies Championship 2015'의 트로피는 유럽프로골프투어 BMW 대회와 같은 디자인으로 대회 스폰서인 BMW 독일 본사에서 직접 만들어 팬들을 기대케 했고, 지난 시즌 첫 개최된 '삼천리 Together Open 2015'의 트로피는 대회 엠블럼 디자인을 본떠 새로운 트로피를 탄생시켰다.



4

골프와 예술이 만나면? '아트 트로피'

골프와 아트의 만남이란 콘셉트로 매 시즌 기발한 형태의 트로피를 소개했던 'Nefs Masterpiece'. 매년 작가들의 창작물을 트로피에 적용시키면서 트로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깼다. 2009시즌에는 강용면 작가의 스틸작품으로 '활짝 핀 모란꽃과 같이 찬란한 영광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려야 찾아온다'는 뜻을 담았고, 2010시즌에는 고명근 작가의 사진조각으로 '정상을 향해 오르는 계단'을 상징화 했다. 2011시즌에는 최정화 작가의 풍선오브제 트로피를, 2012시즌은 홍승희 작가의 액자형 트로피를 선보였다. 2013시즌의 오승열 작가의 초콜렛 트로피와 2014시즌 송진수 작가의 철사 골프캐디백 트로피는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러한 특별한 트로피들은 다양한 모양의 트로피 제작 가능성을 보여준 새로운 시도였다.



단 한 명의 챔피언에게만 수여되는 '트로피'. 영광의 순간을 가득 담을 수 있기에 작은 술잔에서 크기가 점점 커졌던 것은 아닐까. 각 대회별로 차별화 된 모양의 트로피는 우승 대회의 특별함을 기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꿈꾸는
문영그룹

자료제공 _ 문영그룹



MUNYOUNG
문영그룹



문영종합개발

문영종합개발은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그 영역을 무한대로 뻗어 나가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기업입니다.

문영실버산업

문영실버산업은 초고령 사회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실버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명엔지니어링

완벽한 시공, 고객의 안전,
최고의 서비스를 늘 준비하고 창조하는
문영ENG입니다.

문영녹색성장사업

문명녹색성장사업은 '녹색성장'의
최우선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토목사업 및 관급공사를 하면서 쌓인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공사라도 완벽히 해내는 우수한 시공능력으로 사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영은 초고령 사회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 맞추어 실버타운이나 시니어용품 등 노인분들에게 필요하고 편안한 삶을 제공하고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영은 1979년부터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1991년 본격적으로 문영ENG를 설립하여 남들보다 한발 앞선 기술력으로 항상 최고를 자부해왔습니다.

탄소배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에너지 사업과 국토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자연과 융화되는 개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15 히트상품대상, 문영종합개발 '퀵즈파크나인'

오피스텔 성공투자의 신화를 쓰고 있는 문영종합개발이 복합 상가 퀸즈파크 나인과 텐을 신규 브랜드로 런칭,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마곡지구에서 분양에 나섰다.

퀀즈파크나인은 마곡지구 최대 규모의 복합 상가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까지 대형문고, 스크린골프장 및 각종 의류 F&B 브랜드 등이 들어선다. 지상 5층부터 8층까지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서 한 장소에서 쇼핑과 외식, 체육, 문화생활이 가능한 원스톱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지상 5층부터 13층까지 들어서는 섹션오피스는 LG, 코오롱, 롯데, 이랜드 등 약 60여 개의 기업을 따라 마곡지구에 입주하는 협력업체들로 가득 할 것으로 예상돼 공실의 위험성은 낮은 반면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퀀즈파크나인에 이은 퀀즈파크텐은 마곡지구 대표 기업인 엘지사이언스파크 앞에 위치해 마곡지구의 대표적 복합 상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은 상가로, 지상 6층부터 12층까지는 오피스로 구성되며, 다양한 평형대로 공급된다.

마곡지구는 판교테크노밸리의 3배 규모, 16만 명이 넘는 기업 종사자가 예상되는 곳으로 서울 최대의 기업도시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서울이라는 입지조건과 LG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입주, 공항과 지하철 및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문영종합계개발은 신도시이면서 기존 인프라와 맞닿아 있는 마곡지구 발전역사 거기에 잇달아 분양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문영 '비즈트윙트 레드' 오피스텔 부문 대상, 대표 브랜드로 우뚝

‘2015 친환경건설산업대상’에서 (주)분영종합개발의 비스트윙트 레드가 오피스텔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비스트윙트 시리즈는 지난 2012년 레인보우를 시작으로 도심 속 중소형 주거상품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고, 이번 수상으로 중소형 주거 시설 대표 브랜드 자리를 확고히 다지게 됐다.

특히 올해로 7화째를 맞은 중앙일보와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의 ‘2015 친환경 건설산업대상’은 명실상부 우리나라 친환경건설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 본점에서 열린 '2015 친환경건설산업 대상'에는 오피스텔 부문 대상을 차지한 문영종합개발 외에도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산업분야 16개 기업이 함께 수상하기도 했다.



SKY72 GOLF & RESORT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인천국제공항과 근접한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낯선 세계로 떠나는 이들에겐 설렘을, 돌아오는 이들에겐 편안한 장소의 역할을 하는 골프장이다. 121만 평이라는 드넓은 초록 대지를 파란 바다가 둘러싸고 있어 바라만 보아도 가슴이 뻥 뚫리고, 시야가 탁 트이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로 떠나보자.

글 _ 김침미 자료제공 _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Course

2007년부터 이어진 KLPGA와의 오랜 인연

최상의 코스관리와 최고의 코스구성으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국내대회를 비롯해 해외대회까지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2007시즌부터 2010시즌까지 'KB 국민은행 Star Tour'를 시작으로 2011시즌부터 2013시즌까지 메이저대회인 'KB금융 STAR 챔피언십'을, 2015시즌에는 신설대회인 'BMW Ladies Championship 2015'를 개최해 KLPGA와 오랜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매 대회 때마다 차원이 다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의 고품격 서비스 제공은 선수뿐만 아니라 대회를 방문하는 갤러리에게도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국내에서 열리는 USLPGA투어 대회도 8년 연속 꾸준히 개최되고 있어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 특히 이곳에서 2009년에 열린 'LPGA 하나은행 · 코오롱 챔피언십'과 2010년에 열린 'LPGA HanaBank Championship'에서 최나연이 연속으로 우승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2013년 'LPGA KEB · HanaBank Championship'에서 양희영이, 2014년 백규정이 우승하면서 KLPGA의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매년 대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의 하늘코스과 오션코스는 9년 연속으로 '아시아 골프 어워즈'에서 한국 베스트 코스에 연속 선정되었다. 올시즌 역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BMW Ladies Championship 2016'과 'LPGA KEB HANA BANK CHAMPIONSHIP' 두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황무지를 녹색의 땅으로 바꾼 친환경 골프장

다른 대형 골프장들의 위치에 비해 비교적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인천 영종도에 위치해 수도권 골퍼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국내의 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며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서해 바다에 둘러싸인 121만 평 규모의 부지를 각 4개 코스별 18홀씩 총 72개의 홀이 적절하게 채워져 있어 이미 많은 사람에게 명코스로 호평을 받는 골프장이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의 큰 특징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을 위해 채석장으로 사용하고 버려진 폐염전 부지 위에 골프코스를 조성했다는 점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생태계를 고려해 다양한 생명이 넘실대는 녹색의 땅으로 만든 것이다. 나무와 꽃들이 지천에 깔리고, 철새들이 찾아들며, 고라니가 뛰노는 생태지로 거듭나 2012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주최한 '녹색경영골프장' 선정에서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스카이72 골프클럽의 72홀 전 코스는 회원제 골프장도 엄두 내지 못하는 고품질 잔디로 펼쳐져 있다. 특히 하늘코스는 최고급 품종인 벤프그라스를 식재한 전 세계 0.2%밖에 없는 골프코스이다. 전문 잔디 관리자가 코스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며, 홀별로 책임 직원을 뒤 직원들이 책임과 신념으로 만들어간다는 경영철학으로 매년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다. 2005년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연간 80만 명이 찾을 정도로 많은 골퍼들이 찾는 국가 대표 골프장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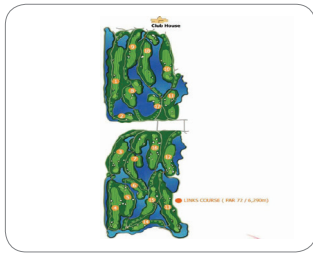
모든 플레이어를 아우를 수 있는 4개의 다양한 코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의 전체코스는 각 코스별 파72(홀18)로 구성된 하늘코스, 레이크코스, 클래식코스, 오션코스 총 4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하늘코스는 푸른 바다와 인천대교, 자연 그대로의 암반과 아름다운 야생화가 조화를 이룬 최고 절경을 지닌 코스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비단길 같은 페어웨이에서의 상쾌한 샷을 칠 수 있어 미셸 위, 최경주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은 코스이다. 레이크코스는 자연 늪지와 호수가 공존하며 습지를 따라 조성된 홀들이 정원과 같은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플로리다 가든형 코스이다. 클래식코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등 누구나 부담스럽지 않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코스로 인위적인 조경보다는 자연미를 살린 정통코스로 다양한 수준의 골퍼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리조트형 코스이다. 오션코스는 자연미가 돋보이는 코스로 인위적인 조경을 배제한 완벽한 설계로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주는 코스이다. 오션코스 특유의 페어웨이를 따라가는 긴 벙커와 많은 마운드는 플레이가 지루하지 않게 묘미를 더해준다. 오션코스는 지난 2015년 아시아태평양골프그룹이 선정하고, 골프산업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아시아 안 골프 어워즈'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별 코스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늘코스
18홀 / 파72 / 6,534m(7,146yd)
넓은 페어웨이와 한눈에 보이는 바다, 절벽, 산, 계곡 등 모든 자연 요소가 조합되어 있는 토너먼트 코스다. 샷을 날릴 수 있는 Seaside코스이며, 최고급 양잔디인 벤투그라스를 식재한 고급코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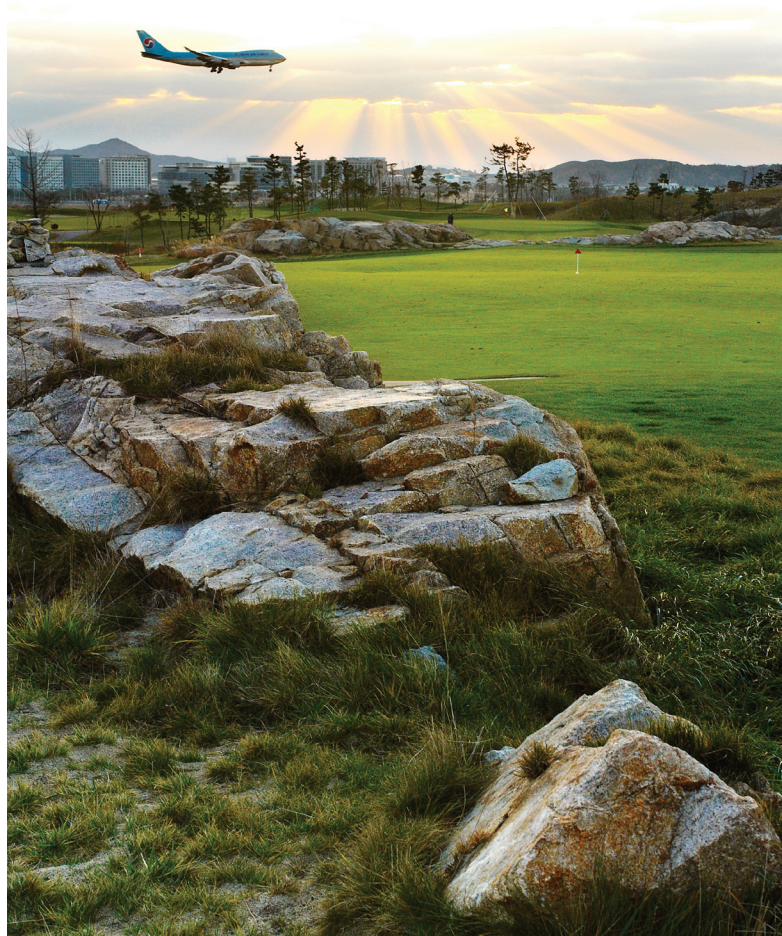
레이크코스
18홀 / 파72 / 6,290m(6,879yd)
인위적인 조경보다는 자연미를 살린 정통코스로 다양한 수준의 골퍼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리조트형 코스이다. 컬러풀한 꽃과 조경을 배제한 국내 최초의 거친 콘셉트의 클래식코스이다.



레이크코스
18홀 / 파72 / 6,414m(7,014yd)
자연 늪지와 호수가 공존하며, 정원과 같은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플로리다 가든 스타일의 코스이다. 페어웨이 좌, 우로 펼쳐진 자연 늪지와 호수가 매 샷의 정교함을 요구하는 코스이다.



오션코스
18홀 / 파72 / 6,652m(7,275yd)
바다가 모두 내려다보여 인상적인 코스로 잭 니클라우스 설계개념인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준다. 특유의 페어웨이를 따라가는 긴 벙커와 많은 마운드는 코스의 묘미를 더해준다.



골퍼만을 위한 세심한 배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2015년, 국내 골프장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을 도입하겠다고 선포했다.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CCM 인증을 목표로 앞으로 CCM T/F 팀을 구성해 실무자들의 관련 교육과 전사적인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세부적인 체계 마련을 위해 박차를 다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 곳곳에서 계절에 따라 아이스크림, 어묵, 봉어빵, 호떡 등을 무료로 맛볼 수 있는 재미가 있다. 몸과 눈뿐만 아니라 입까지 즐겁게 해주는 다채로운 골프장이 아닐 수 없다.

Travel



산철쭉과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는 백운산

봄철, 바다와 그 건너 육지를 동시에 볼 수 있고 화려한 꽃들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백운산에 올라보자. 그리 높지도, 가파르지도 않아 두 시간이면 산행이 가능해 가족이 다 함께 산행하기 좋은 산이다. 산을 오르면서 서해의 낙조와 하늘을 나는 물새를 보며 낭만을 즐길 수 있다. 산 중턱에는 태고종 사찰 용궁사가 있는데 앞마당에서 1,300년이나 된 웅장한 느티나무를 볼 수 있다. 산 정상에 오르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앞바다에 흠어져 있는 섬을 바라볼 수 있다. 또한 봄이면 백운산은 온통 산철쭉과 진달래로 뒤덮여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한다.

백운산 _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부대시설 안내



세계 최대 규모인 드림골프연습장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골프 연습장인 '드림골프연습장'이 있다. 지름 400야드, 300타석에 천연잔디가 깔린 연습장으로 숏게임컴플렉스와 벙커연습장, 퍼트연습장, 천연잔디타석 등을 갖추고 있어 세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 드림골프연습장은 골퍼다이제스트에서 '골퍼라면 꼭 가봐야 할 전 세계 골프명소'에 선정된 곳으로 골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7개 홀(파4/1홀, 파4/1홀, 파3/5홀)을 갖춘 '드림듀스코스'가 있어 골퍼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골프장이다.



자가검진으로 유방암을 미리 대비하자!

정기적으로 유방암 자가검진을 하는 방법

한국유방암학회는 일반 여성 221명 대상으로 유방암 자가검진 실태 및 질환 인식 정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유방암 발병 위험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유방 자가검진하는 여성들은 100명 중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방암학회의 권고안에 따라 '유방암 자가검진'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자료제공 _ 한국유방암학회, 핑크리본매거진

높아지는 유방암 발병 위험!

여성 인식은 제자리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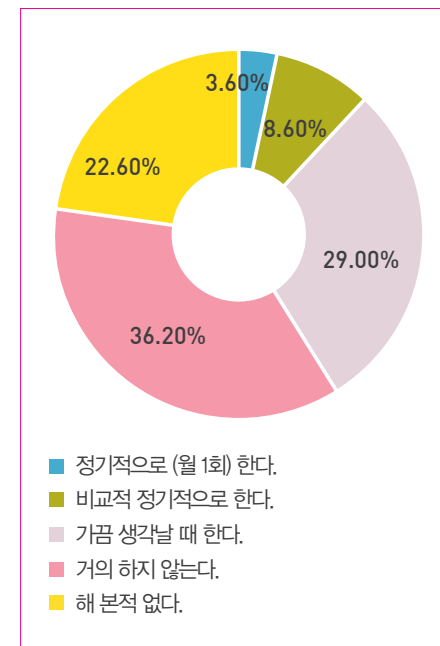
- 정기적으로 유방 자가검진하는 여성, 100명 중 단 4명 불과
- 한국유방암학회, 일반 여성 221명 대상으로 유방암 검진 실태 및 질환 인식 정도 조사
- 美·日보다 유방암 발병 위험 높은 30대, 16.3%만 나이에 맞는 검진 받아

한국유방암학회가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여성 2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방암 인식 실태 분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매월 1회 자가검진을 시작해야 하는 30대 여성의 경우 6명 중 1명(16.3%)만이 규칙적인 자가검진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비단 30대뿐 아니라 전체 조사 대상 여성 3명 중 2명(58.8%)은 유방암 자가검진을 해본 적이 없거나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중 22.6%는 자가검진 경험이 없었다. [그래프 1]

우리나라는 30~40대 등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여성의 유방암 위험성이 크다. 40세 미만 발생률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높다. (한국 10만 명 당 38.9명/일본, 미국 10만 명 당 25.2명, GLOBOCAN 2012) 이에 한국유방암학회는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실천하는 사람은 소수였다.

30대 여성들 중 43.9%는 자가검진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73.2%의 여성들이 유방암 자가검진을 해본 적이 없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자가검진을 시행하는 여성들은 없으며, 비교적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여성들은 9.2%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들 중 16.3%는 자신이 한국유방암학회 검진 권고안에 따라 연령에 맞는 자가검진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87.3%의 여성들은 아니라고 밝혔다.

40대 여성들은 66%가 자가검진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여전히 61.7%의 여성들은 유방암 자가검진을 해본 적이 없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1] 유방 자가검진 권고안 준수 여부

또한 연령별 권고 기준에 맞게 자가검진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8.5%에 불과했음에도 51.1%가 스스로 권고안에 맞는 자가검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여성들은 57.8%가 자가검진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48.9%가 거의 자가검진을 해본 적이 없고, 이중 4.4%의 여성이 한 달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자가검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60대의 여성들은 64.5%의 자가검진에 대해 알고 있으나 54.8%의 여성들이 자가검진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자가검진에 대한 조사 결과로 보면 30대에서 60대까지의 여성 중 절반 정도는 자가검진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해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자가검진을 실제로 행하는 빈도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스스로 연령에 맞는 검진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빈도수가 높은 것은 실제로 자가검진 및 유방암 검진에 대해 연령에 맞는 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방암에 대해 잘못된 인식 여전,

생활습관 개선에 관한 오해 많아

유방암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여성도 여전히 많았다. 운동과 식이 등 건강한 생활습관만으로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절반 이상(52.0%)에 달했다. 또한 10명 중 6명(57.5%)은 자가검진만으로 유방암 진단이 가능하다고 답해 맘모그램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방암학회 홍보이사 김성원 원장(대림성모병원)은 “우리나라는 한 해 유방암 신규 환자가 2만 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서구에 비해 젊은 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나이에 맞는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가검진은 물론 목욕·마사지 등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유방 촉진으로 유방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므로 유방 촬영이 권고되는 40대 이상 여성도 매월 자가검진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성 22.6% 유방암 자가검진 경험 없어, 30대 여성 16.3%만 자가검진 한다.

유방암 검진, 어떻게 해야 할까?

유방암 검진이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유방촬영술 등을 통하여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한국유방암학회에서는 30세 이후 매월 유방 자가검진, 35세 이후 2년 간격으로 의사의 임상 진찰,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의사의 임상진찰 및 유방촬영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서도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의사의 임상 진찰과 유방촬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방암의 자가검진 방법

유방암은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질병 중 하나이다. 물론 자가검진만으로 유방암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자가검진으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는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은 유방이 작고 섬유 조직이 많기 때문에 유방을 스스로 만져 진찰해보는 자가검진이 경제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다.

검진은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생리가 있는 여성은 생리가 끝난 직후 일주일 전후가 가장 검사하기 좋은 시기이고(배란기 전후에서 생리 때까지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유방이 단단해지고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임신 혹은 폐경 등으로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자가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검진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방 자가검진 방법

1 단계 거울을 보면서 육안으로 관찰
(평상시 유방의 모양이나 윤곽의 변화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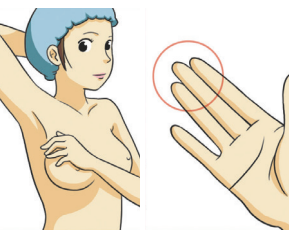


양팔을 편하게 내려놓은 후 양쪽의 유방을 관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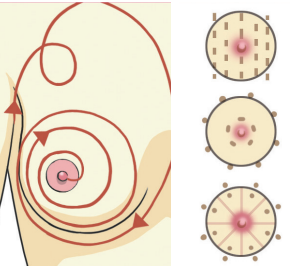
양손을 머리 뒤쪽으로 올려 각자 긴 자세를 취한 후 팔에 힘을 주고 가슴을 앞으로 내민다.

양손을 허리에 짚고 어깨와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면서 가슴조직에 힘을 주고 앞으로 숙인다.

2 단계 서거나 앉아서 촉진
(로션 등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검진)



검진하는 유방쪽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반대편 2, 3, 4번째 손가락 첫마디 바닥면을 이용해 검진한다.



유방 주위 바깥쪽 상단부위에서 원을 그려가면서 안쪽으로, 반드시 쇄골의 위아래 부위와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검진한다. 동전크기만큼씩 약간 힘주어 시계 방향으로 3개의 원을 그려가면서 검진한다. 유방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고 좀 더 작은 원을 그리는 식으로 한 곳에서 3개의 원을 그린다.



유두 주변까지 작은 원을 그리며 만져 본 후에는 유두의 위아래와 양옆에서 안쪽으로 짜보아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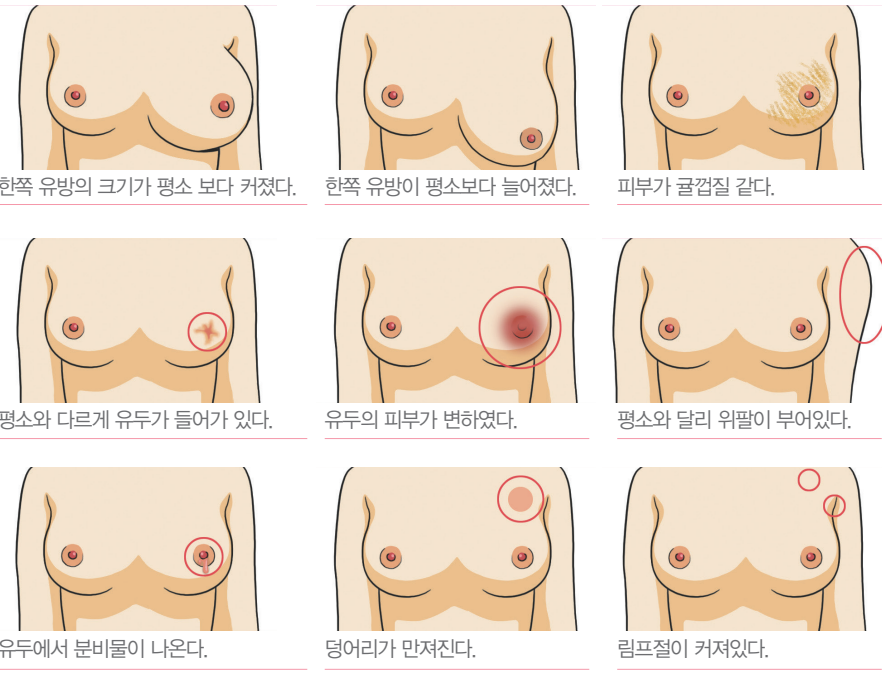
3 단계 누워서 촉진
(2단계를 보완, 자세를 바꿈으로써 문제 조직 발견)



편한 상태로 누워 검사하는 쪽 어깨 밑에 타올을 접어서 받친 후 검사하는 쪽 팔을 위쪽으로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2단계의 방법과 같이 검진한다.

유방암의 증상

자가검진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유방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한쪽 유방의 크기가 평소 보다 커졌다.

한쪽 유방이 평소보다 늘어졌다.

피부가 굴뚝질 같다.

평소와 다르게 유두가 들어가 있다.

유두의 피부가 변하였다.

평소와 달리 위팔이 부어있다.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덩어리가 만져진다.

림프절이 커져있다.



자가검진 시 유의 사항

- 자가검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습관화한다.
- 평상시 자신의 유방의 모양이나 윤곽에 관심을 기울인다.(본래 모습 기억)
- 2, 3, 4번째 손가락의 첫마디를 이용해 검진한다.
- 동전 크기의 원을 그리며 빠진 부분이 없도록 유방 전체를 검진한다.
- 유방의 측면과 겨드랑이 부위까지 만져본다.(반대편 팔을 이용)
- 처음 검진하는 경우 한 달 동안 매일 검진하여 자신의 유방 특성을 파악한다.

솔병원 이 알려주는 골퍼를 위한 골프 피트니스

세라밴드를 이용한 근력 및 근지구력 강화 운동 II

글 _ 나영무(솔병원 원장) 자료 제공 _ 솔병원(02-2064-7575, www.sol-hospital.co.kr)

골프에서의 일관된 스윙이란 발이 지면에 미끄러지지 않고 하체, 골반, 척추, 어깨, 팔 관절들의 바른 정렬로 클럽헤드에 효율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즉, 하체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를 골반을 통해서 척추와 복부 중심부에 전달하고 어깨와 팔을 통해 그 에너지가 클럽에 최상으로 전달되어 임팩트 순간 원할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은 스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안정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증가할수록 다칠 위험이 증가하고 허리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슬라이스나 훅성의 미스 샷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태릉선수촌에는 '코끼리 코'라는 보통 밴드보다 훨씬 두꺼운 밴드가 있는데 하나 끊을 때마다 메달 색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끊어 내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얇은 밴드를 사용하는데도 하나 끊어지면 드라이버 거리가 10m 늘어난다면 대부분의 골퍼들은 당장 스포츠용품점을 찾아 나설 것이다. 흔히 근력을 키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헬스클럽에서 몸짱이 되기 위해 무거운 장비를 이용하여 근육을 키우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골프에서는 보디빌더와 같은 근육이 필요하지 않다.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신체의 개별근육이 골프 스윙에 방해 되지 않고 가장 단단하게 이어주는 '기능적인 근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달에 이어 소개하는 운동은 견고하고 일관된 스윙으로 정확성과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근력 및 근지구력 강화를 위해 세라밴드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운동이다. 2월호에 이어 세라밴드를 이용한 근력 및 근지구력 강화를 소개한다.



솔병원은 KPGA 공식지정병원으로서 KPGA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각 투어별 전 대회)에 전담 의무팀(애크런스 1대, 간호사 1명, 트레이너 1명)을 파견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대회 기간 동안 부상 예방 및 처치를 위한 기본적인 Medical Service를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정규투어 메이저 대회에는 전문의 1명과 의료장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운영한다.

I 상체 부위 강화 운동

1 - 6 세라밴드를 이용한 등 강화 운동



광배근(날개뼈 밑 몸통 옆 큰 근육) 강화 운동
○ **방법** : ① 어깨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서서 밴드를 잡는다.
② 팔꿈치를 접어서 배꼽 방향으로 당긴 후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 **Point** : 10회, 3세트 실시한다.



몸통 회전 강화 운동
○ **방법** : ① 어드레스 자세로 서서 밴드를 잡는다.
② 팔을 편 상태로 고정시켜 몸통을 90도 회전한 후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 **Point** : 좌우 10회, 3세트 실시한다.

1 - 7 세라밴드를 이용한 골프 스윙 운동



○ **방법** : ① 어드레스 자세로 서서 밴드를 양손으로 잡는다.
② 골프 스윙하듯이 팔로우 스루 지점까지 올라간 후 시작 위치로 천천히 돌아간다.
✖ **Point** : 10회, 3세트 실시한다.

II 하체 부위 강화 운동

2 - 1 세라밴드를 이용한 골반 및 엉덩이 강화 운동



골반 강화 운동
○ **방법** : ① 바닥에 앉아서 밴드를 발목에 고정하고 다리를 편다.
② 다리를 살짝 올리고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양발을 벌린 상태로 6초 정지 후 천천히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 **Point** : 10회, 3세트 실시한다.

2 - 2 세라밴드를 이용한 허벅지 강화 운동



하체 전체 강화 운동
○ **방법** : ① 밴드를 밟고 서서, 손을 어깨 옆에 고정하고 준비한다.
② 엉덩이를 긴장시켜 뒤로 빼면서 무릎을 90도까지 접은 후 시작위치로 돌아간다. (단, 무릎이 앞발가락 앞으로 나오면 안 되며, 무릎과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45도까지만 내려간다.)
✖ **Point** : 10회, 3세트 실시한다.

2 - 3 세라밴드를 이용한 발목 강화 운동



발목 강화 운동
○ **방법** : ① 바닥에 앉아서 밴드를 발 앞부분에 고정시킨다.
② 발을 중립위치에서 위, 아래, 안, 바깥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강화 운동을 한다.
✖ **Point** : 각각 10회, 3세트 실시한다.



엉덩이 강화 운동
○ **방법** : ① 밴드를 무릎에 고정하고 바닥에 옆으로 누워서 준비한다.
② 윗다리를 펴서 바닥과 평행하게 올린상태로 6초 정지 후 천천히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 **Point** : 10회, 3세트 실시한다.



슬팍근(허벅지 뒤 근육) 강화 운동
○ **방법** : ① 밴드를 발뒤꿈치에 고정하여 엎드린다.
② 엉덩이를 긴장시켜 무릎을 90도 접은 후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 **Point** : 좌우 10회, 3세트 실시한다.

2 - 4 세라밴드를 이용한 종아리 강화 운동



종아리 강화 운동
○ **방법** : ① 발 앞부분으로 밴드를 밟고 서서 준비한다.
② 밴드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무릎을 편 상태로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3초 정지 후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 **Point** : 10회, 3세트 실시한다.



절세상품으로 재테크 성공하기

2016년 새롭게 도입되는 절세상품 2종

김동의 부장 (NH투자증권 대치MMC)
 T. 02. 556. 3364 M. 010. 2513. 4341 E. fortune@nhwm.com

이번 2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5%로 동결되었다. 유럽에 이어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행히 8개월째 1.5%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은행 예금 수준의 금리로 재테크를 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꼭 활용해야 할 상품이 바로 절세상품인데 2016년 3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운 절세상품으로 도입될 예정이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2016년 2월 말부터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출시된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매매차익, 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서 모두 15.4% 과세하는데 이번에 출시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경우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매매와 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 (배당, 이자소득은 과세) 해외주식형 펀

드라고 하면 해외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와 해외 ETF가 해당된다. 가입자격은 따로 없고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3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최소의무가입기간 없이 가입 후 2년 동안은 자유로운 펀드 환매와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비과세 혜택 기간은 최대 10년간 유지가 가능하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는 한 계좌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며, 만기에 금융상품의 운용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절세 자산관리계좌이다. 가입자격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으로 총 5년에 걸쳐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에 가입 중이라면 한도를 합쳐서 연간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중 단 한 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형은 5년, 서민형, 청년형은 3년간의 무가입기간을 지켜야 세제혜택이 있다. ISA 계좌는 1개의 상품이 아니라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절세효과는 최종 순이익 기준

으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비과세 초과 소득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된다. 통상 이자소득세가 15.4%인 점을 감안하면 ISA 계좌를 통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ISA 계좌는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다. 신탁형은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여 직접 운용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하다. 일임형은 금융회사의 모델 포트폴리오 중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신탁형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초기 ISA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은행은 신탁형으로만 ISA 운용이 가능하였으나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도 일임형 ISA 상품판매가 가능해졌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ISA 가입이 가능하다. ISA 계좌의 실제 가입은 3월 중순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월부터 많은 금융기관이 자동차 경품, 특관 고금리 RP 등으로 사전 마케팅을 하고 있어 조금만 발품을 팔면 좋은 혜택을 받으며 가입할 수 있다.

은행 예금 수준의 금리로 재테크 하기 어려워지는 요즘, 새로운 절세상품으로 도입 예정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을 통해 세금도 줄이고 재테크의 성공을 기대해보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요

구분	내용			비고
가입대상	거주자 중 직전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or 사업소득이 있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해당연도의 신규 입사자, 신규 사업자도 가입 가능 외국인도 거주자일 경우 가입 가능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계약방식	신탁형 ISA	일임형 ISA		일임형 ISA의 경우 금융회사의 모델포트폴리오 운영에 맡기되, 투자자가 모델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음 (종목 변경 및 자산군 비중 조절)
	투자자가 직접 상품 선택	모델포트폴리오 선택 (비지정형)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 (분기별 한도 없음)			총 1억 원 까지 납입 가능(만기 5년 기준) ※ 소장펀드 및 재형저축 가입자는 해당 상품의 가입한도를 감안해야 함
투자가능 상품	예·적금, 예탁금, 파생결합증권(ELB, ELS, ETN 등), 펀드(ETF 및 등록 역외펀드 포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에서 투자가능 상품에 고루 분산투자 가능
비과세	일반형	서민형	청년형	※ 서민형 :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 원 이하 사업자 ※ 청년형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병역이행기간 차감한 연령) 자산형성지원금을 지급 받는 자 각 금융상품의 과세대상 손익 통산하여 세제혜택 적용 단, 국내주식형펀드 매매·평가차익 등 비과세 손익은 통산하지 않음
	2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만기	5년	5년	5년	
의무가입기간	5년	3년	3년	
분리과세	비과세 초과 소득분에 대해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농어촌특별세는 과세하지 않음)
가입기한	2018. 12. 31 까지			1인 1계좌 원칙,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시 일시적 2계좌는 허용



꽃내음 담은 길로 혼저옵서예

봄나들이 가기 좋은

제주 꽃길 3코스

누군가 내게 제주를 여행하기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봄이라고 답할 것이다.
 누구나 마음 한편에 낙원을 품으며 살아가듯 내게 제주의 봄은 생각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편안함을 준다. 그 중 대표적인 노란 유채꽃은 제주를 상징하지만 유채꽃을 비롯한 벚꽃, 동백꽃 등 봄의 정령사라고 불리는 꽃이 제주 지천에 깔린다. 겨우내 언 땅이 녹으면서 다양한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제주의 눈부신 꽃길 3곳을 소개한다.

글 _ 김청미 사진제공_제주관광공사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샛노란 유채꽃과
 새파란 파도의 물결”



샛노란 유채꽃
 비단이 펼쳐진,
 섭지코지

제주 사투리로 ‘좁은 땅’이라는 뜻의 ‘섭지’와 ‘꽃’을 의미하는 ‘코지’가 합쳐져 ‘섭지코지’라고 부른다. 우리에게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잘 알려진 곳이지만 촬영지 때문이 아니더라도 제주에서 가장 걷기 좋은 곳으로 사랑받는 장소 중 하나이다. 섭지코지의 봄을 떠올리면 빠질 수 없는 것은 비단같이 펼쳐진 노란 유채꽃의 향연이다. 샛노란 유채꽃의 물결과 새파란 파도의 요동을 함께 보지 않고는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거기에 기암괴석들로 절경을 이루는 해안이 합쳐져 한 폭의 수채화가 한가득 피어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정상까지는 걸어서 여유 있게 한 시간 내외로 소요되며 경사가 완만하고 산책로가 잘 다듬어져 있어 아이나 어른신이 걷기에도 큰 무리가 없는 코스이다. 제주가 원래 바람이 많은 섬이기는 하지만 섭지코지의 바람은 유난히 크고 시원하다. 바람을 따라 유채꽃의 향기로 물드는 초원을 걸으면 섭지코지는 단지 본다는 것을 넘어 자연을 몸소 체험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된다. 올해도 설레는 마음으로 땀을 두드리는 바람 사이로 퍼지는 유채꽃의 싱그러운 향을 상상하며 섭지코지를 걷는 꿈을 꾸어본다.

+

문의 064-782-2310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7



“겨우내
거칠었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흘날리는
왕벚꽃잎들”

따스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제주 왕벚꽃 축제

겨우내 거칠었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벚꽃이 팝콘처럼 핀 길을 걷는 것은 이제는 봄나들이의 필수코스가 되어 우리에게 흔한 풍경이 되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벚꽃과는 달리 제주의 왕벚꽃은 한라산이 자생 종인 꽃이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꽃이다. 가지에 아롱아롱 달린 큰 꽃잎, 벌과 나비들을 휘잡는 향기, 벚나무들이 줄지어 서있는 장대한 광경까지 제주의 왕벚꽃은 진정 4월에 피는 꽃의 여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여왕 같은 꽃을 볼 수 있는 제주의 축제가 있다. 매서운 바람 대신 왕벚꽃잎이 불어오는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제주 왕벚꽃 축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벚꽃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은 제주에서 화려한 왕벚꽃과 함께 새봄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 축제 초기에는 전농로 왕벚꽃 거리에서 개최했으나 도로가 협소하여 행사 때마다 교통체증이 발생해 현재는 넓은 종합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거행하고 있다. 찰나의 아름다움의 왕벚꽃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번 봄에는 왕벚꽃이 완연하게 피는 제주 서광로에서 흘날리는 꽃비를 맞으며 마음껏 봄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

+ 기간 2016.04.01. ~ 2016.04.10.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길 24



“선명한 동백꽃의 빛깔처럼
희미해지는 소중한 마음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겨울을 이겨낸
동백꽃이 가득한,
카멜리아 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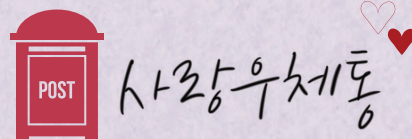
동백꽃은 한겨울에 피어나 곧센 꽃이라 불려졌다. 희디 흰 차가운 눈을 희롱하듯 강렬하게 피어오르고, 봄이 시작되면 보란 듯이 장렬하게 만개한다. 동백꽃 수목원인 카멜리아 힐, 이곳에는 겨울을 이겨내고 핀 강인한 동백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새하얀 신부를 닮은 순백의 동백꽃, 붉은 와인 빛의 매혹적인 동백꽃, 수줍은 소녀의 볼처럼 발그레한 분홍빛 동백꽃 등 수백여 종의 다양한 동백꽃이 있다. 카멜리아 힐에서 보유한 동백나무 수종과 규모는 동양 최대로 꼽힌다. 이 수백여 종의 동백나무가 빼곡히 들어찬 수목원을 걸으며 닮은 듯 다른 모양의 꽃을 찾아보는 재미가 솔솔하다. 아기자기한 크기의 수목원을 걷다보면 일상 속에서 희미해지는 소중한 마음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길 중간중간 숨어 있다. 곳곳에 마련된 실 자리에 머물러가며 사랑과 힐링의 숲을 온전히 즐기며 각별한 시간을 보내보자. 동백꽃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은 제주를 찾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춤치기에 충분하다.

+ 문의 064-732-0088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166



묵묵히 딸을 응원하는 최혜정2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

지난 해 KLPGA 최종전에서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거머쥔 최혜정2. 그의 어머니가 딸에게 평소엔 전하지 못했던 말과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선수 부모님들! 평소에 딸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공개적으로 전할 기회를 드립니다.

딸에게 평소엔 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했던 말이나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편지 한 편은 'KLPGA members'에 실릴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부모님은 편지와 함께
딸과 찍은 추억의 사진이나 감동의 순간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세요.
klpgamembers@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수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듬직하고 자랑스러운 내 딸 최혜정에게

정말 오랜만에 너에게 편지를 쓰는구나.

두바이로 전지훈련을 간지도 두 달이 다 되어 가네.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부딪혀 잘 해나가고 있는 널 보면 항상 든든하다.

처음 골프 시작할 때는 엄마로서 도움 줄 수 없는 것에 늘 안타까웠다.

어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골프연습을 하여 물집이 잡혀

딱딱하게 굳은 손을 잡고는 울기도 많이 했지.

실패를 극복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유혹도 뿌리치고 깨끗하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해온 너에게 찬사를 보낸다.

2016년 시즌 동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헤쳐나 가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훗날 많은 후배가 너를 본보기로 삼으면서 꿈을 이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게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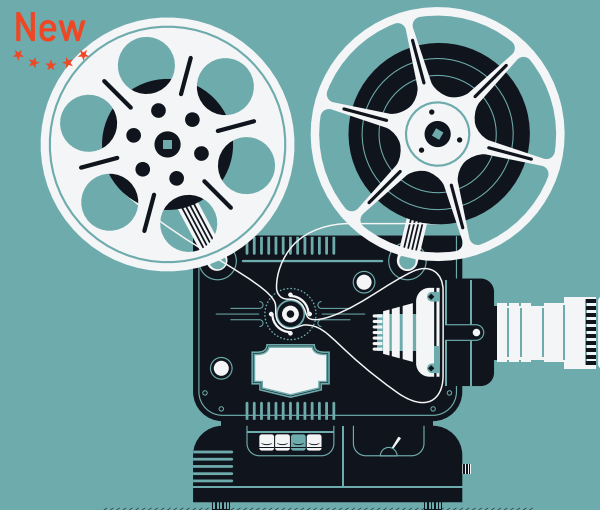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널 응원한다는 걸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마음이 따뜻한 세계적인 프로골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언제나 네가 엄마에게 기댈 수 있게 뒤에서 묵묵히 응원할게.

내 딸, 사랑해~ ♥

2016년 2월 어느 날,
너의 영원한 팬 엄마가



그때, 그 시절 아련한 추억여행

일상의 자친 마음에 깊은 위안이 필요한 당신에게 추억이 선사하는 따뜻함을 담은 문화 콘텐츠를 소개한다. 옛 향수에 푹 젖어 있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볼 수 있는 3월의 다양한 이야기를 눈여겨보자.

글_ 김청미

Movie



순정

멜로 가뭄이 들었던 극장가에 전남 고흥의 섬마을을 배경으로, 지난날의 풋풋했던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영화 한 편이 찾아왔다. 영화 '순정'은 라디오 DJ 형준에게 첫사랑의 이름으로 보내진 사연이 도착하면서 형준의 과거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가는 형식의 멜로 영화이다. 1991년을 주요 배경으로 내 세워 어린 시절 추억을 상기시키고, 순박한 시골 아이들의 풋풋한 첫사랑을 통해 가슴 속에 묻어둔 아련했던 첫사랑의 기억을 들춰낸다. 영화의 적재 적소에 배치된 추억의 율드팝과 90년대 대중가요 역시 '순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다.

개봉 2016.02.24.
감독 이은희

Musical



꽃순이를 아시나요

우리를 부모님의 이야기를 담은 가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뮤지컬이 있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19세 '순이'와 그녀의 첫사랑인 '춘호'의 10대부터 60대까지의 삶을 그려낸 이야기다. 순이가 살아온 40년의 추억 이야기와 함께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불후의 명곡과 에피소드가 넘실대고, 2030세대도 즐길 수 있는 친숙한 복고 트렌드를 절묘하게 무대화한 작품이다. 김국환 '꽃순이를 아시나요', 이미지 '동백 아가씨', 남진 '님과 함께', 이선희 '인연' 등 젊은 시절 함께 울고 있었던 당대의 히트곡이 흐르며 옛 향수를 자극한다.

일시 2016.03.04. ~ 2016.05.01.
장소 한성아트홀 제1관

Play



라면

최종우돌 연애 스토리를 라면 끓이는 법과 비교해 담은 연극 '라면'이 3월 1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당세실극장에서 시즌2를 개막한다. 연극 '라면'은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과 남녀의 사랑이 닮았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발상이 시작된 작품이다. 스프를 먼저 넣는 남자와 면을 먼저 넣는 여자가 만나 서로 다른 매력을 펼쳐며 아웅다웅하는 이야기로, 등장인물들의 학창시절과 현재를 오가는 청춘 코믹극으로 기존 로맨티코미디 연극과는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20대 젊은 연인들의 공감부터 40대 중년 부부의 추억까지 끌어낼 수 있는 청춘 러브스토리로 폭넓은 관객층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일시 2016.03.11. ~ OPEN RUN.
장소 대학로 마당세실극장

채영바라기, 이쁜 댐플은 언제나 '심쿵' <윤채영 팬카페> 이쁜 댐플 김학수



"영업의 기초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거든요. 내게 완전히 마음을 열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그 사람의 옆 사람, 뒷 사람, 이런 식으로 제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어느 대기업체 총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나는 경영자이자 비즈니스맨이고 동시에 영업맨이다. 인생은 한 방이 없고, 잭을 날리다보면 챔피언이 된다는 그분의 말씀을 각인하여 오래도록 되새김질하며 곱씹고 있다.

팬카페에서 활동을 한지 5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반은 변한 시간이니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 부팅을 하고 최선위로 클릭을 하는 팬카페 사이트. 저녁에 퇴근하며 마지막으로 카페에 게시글과 댓글을 달며 하루를 마감한다. 한마디로 팬카페는 나의 일상이자,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형용 못할 엄청난 흡인력으로 근 60개월을 빨아드린 블랙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측량하기 어려운 동심원 안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체감한 세월이다. 2014년 7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연장 승부 끝에 생애 첫 우승을 하던 날, 나는 사무실 한 편에서 사나운 맹수가 낭떠러지 절벽에서 허공을 가를 듯 부르짖는 괴성으로 목놓아 외쳤다. 159전 160기의 열정과 투지로 투어 입문 9년 만에 독심의 금자탑을 쌓아 올린 채영 프로님이 무한긍정의 여신으로 눈물샘을 자극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사무실 간판을 뒤덮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8월, 퇴약별 아래의 마치 한층막 같았던 '한화금융 클래식 2014' 최종라운드. 준비한 현수막을 펼쳐 내보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주관방송사 카메라맨들에게 한 컷만 잡아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다. 18번홀 마지막 그린에서 마지막 퍼트를 성공하며 방송 화면에 환한 미소로 답례하던 채영 프로님의 상큼한 미소가 어찌나 벅차게 감각되었던지...

2015년 12월, 대전 조이마루 테마파크에서 SBS골프가 주관한 '2016정관장배 퀸즈배틀' 대회에서 강력한 상대팀들을 압도하며 우승을 뛰어넘는 준우승의 기적을 일구어냈을 때, 나는 가슴 찡한 무엇인가 끊임없이 윙송을 치고 있음을 절감할 수 있었다. 우리 팬카페 페리도트 님의 제안으로 명칭했던 '채영나라!' 우리 채영 프로님이 한없이 날아오르며 비상하시라는 '날다'라는 의미와 모든 팬카페 회원님들이 더불어 어깨동무하며 함께 즐거가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우리나라'라는 의미의 복합 개념이었다. 나, 이쁜 댐플은 채영 프로님을 무한 긍정하고 신뢰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내 일상이자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베스트 라이프 프로세스'가 되어주고 계시기에 더욱 그렇다. 향후에도 채영 프로님을 향한 방향성과 비거리는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되어 푸른 하늘과 파란 잔디를 밟을 것이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예쁜 댐플 자국으로...



pagoda star 생일선물



영어
JOE 류(조 류) 강사



일본어
김수진 강사



중국어
이병선 강사

- A** Hey, did you know that it's Gina's birthday today?
안녕, 오늘이 지나 생일인 거 알고 있었어?
- B** Oh, really? I should give her a call.
아, 진짜? 전화해보자.
- A** I think we should prepare a birthday gift for her.
생일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 B** That sounds like a plan. We should get her a nice wallet.
좋은 생각이야. 우리 좋은 지갑 사주자.
- A** Ok. But isn't it too expensive?
그래. 근데 너무 비싸지 않을까?
I'm on a tight budget these days.
나 요즘 주머니 사정이 별로인데.
- B** Don't worry. We will pick something affordable.
걱정 마. 알맞은 선에서 고르자.
- A** Ok. We should split the bill.
그래. 우리 비용 같이 내자.

- A** 田中さんの誕生日プレゼント、
何がいいと思いますか。
たなかさんのたんじょうびふれげんと、
なにがいいとおもいますか。
다나카상노 탄조비 프레젠토,
나니가 이이도 오모이마스까?
다나카 씨의 생일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 B** このセーターなんかどうですか。
今年、流行りの色だし...
このセーたんなんかどうですか。
とし、はやりのいろだし...
고노 세-타 난까 도오데스까?
고토시, 하야리노 이로다시...
이 스웨터 같은 건 어때요? 올해 유행하는 색인데...
- A** いいですね。
田中さんが好きそうなスタイルですね。
いいですね。
たなかさんがすきそうなスタイルですね。
이이데스네. 다나카상가 스키소나 스타이르데스네.
좋네요. 다나카 씨가 좋아할 것 같은 디자인이네요.
- B** じゃあ、これにしましょう。
あと、包装してもらわないと。
じゃあ、これにしましょう。
あと、ほうそうしてもらわないと。
자아, 고래니 시마쇼.
아도, 호오소 시메 모라와나이도.
그럼, 이것으로 해요.
그리고, 포장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 A** 听说丽丽明天过生日，是吗？
Tingshuo Lili mingtian guo shengri, shima?
듣자 하니 내일 리리의 생일이라는데, 맞나?
- B** 是的，你怎么知道的？
Shide, ni zenme zhidaode?
맞아, 너 어떻게 알았니?
- A** 小明告诉我的。我买什么礼物好呢？
Xiǎomíng gàosù wǒ de.
Wǒ mǎi shénme lǐwù hǎo ne?
샤오밍이 말해줬어. 내가 어떤 선물을 사는게 좋을까?
- B** 最近丽丽好像学汉语，你送她一本汉语书吧。
Zuìjìn Lili hǎoxiàng xué Hànyǔ.
nǐ sòng tā yì běn Hànyǔshū ba.
최근에 리리가 중국어를 배우는 것 같은데,
너 중국어 책 한 권 선물해.
- A** 好主意，你准备礼物了吗？
Hǎozhūyi, nǐ zhǔnbèihǎo lǐwù le ma?
좋은 생각이다, 너는 선물 준비 다 했니?
- B** 当然啊！但是我还没写生日卡。
Dāngrán a! Dànshì wǒ hái méi xiě shēngrìkǎ.
당연하지! 그런데 나 아직 생일카드 안 썼어.
- A** 我也是，我们一起去买卡吧。
Wǒ yě shì, wǒmen yìqǐ mǎi kǎ ba.
나도야, 우리 같이 카드 사러 가자.

자료 제공 파고다스타(www.pagodastar.com)

KLPGA TOUR 2015 SPONSORS & PARTNERS

KLPGA를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KLPGA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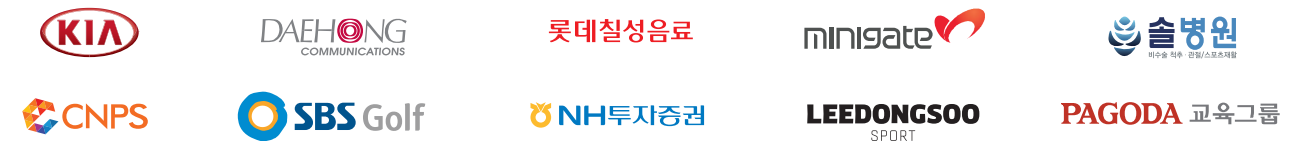
정규 투어 타이틀 스폰서



드림 · 점프 · 시니어 투어 타이틀 스폰서



마케팅 파트너



틀린그림찾기

66

페이스북(www.facebook.com/korealpga) 메시지를 통해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99



사진 속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지난 2월호 틀린그림찾기 당첨자 정성훈 님에게는 KLPGA에서 준비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